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www.arteweek.kr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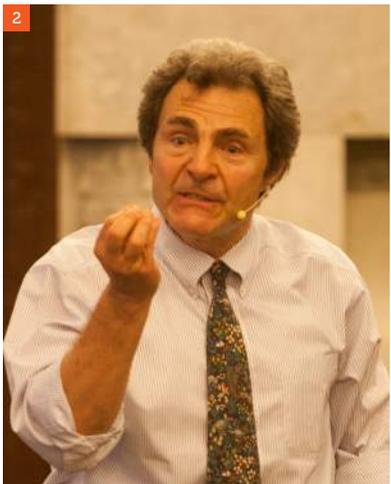
2014 결과보고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현장 스케치



- 01 공식 프로그램 _ 개막음악회
- 02 공식 프로그램 _ 개막강연
- 03 공식 프로그램 _ 폐막식
- 04 기획 프로그램 _ SNS 캠페인
- 05, 06, 07 기획 프로그램 _ 예술체험 박람회





01 기획 프로그램 _ 특별한 인터뷰
 02, 03, 04 기획 프로그램 _ 말하는 변화



- 05 기획 프로그램 _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 06 기획 프로그램 _ 정책사업 전시
- 07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_ 문화예술교육 포럼
- 08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_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01, 02, 03 정책사업연계프로그램 _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 04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_ 예술강사 만남의 날
- 05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_ 예술강사 이야기마당
- 06, 07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_ 특별한 하루
- 08, 09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_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 목차

— 01 행사 개괄

- 01-1. 개최 배경 - 014
- 01-2. 행사 개요 - 015
- 01-3. 행사 주제 및 슬로건 - 016
- 01-4.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 017
- 01-5. 요일별 프로그램 - 018

— 02 추진 과정 및 성과

- 02-1. 추진 체계 - 022
- 02-2. 추진 과정 - 023
- 02-3. 추진 성과 및 평가 - 024
 - 01. 총괄 성과 개요 - 024
 - 02. 성과와 과제 - 028

— 03 행사 세부 결과

- 03-1. 공식 프로그램 - 032
 - 01. 개막음악회 - 033
 - 02. 개막강연 - 035
 - 03. 폐막식 - 037
- 03-2. 기획 프로그램 - 038
 - 01. SNS 캠페인 - 039
 - 02. 예술체험 박람회 - 040
 - 03. 특별한 인터뷰 - 043
 - 04. 시민 참여형 전시 - 045
 - 05.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 046
 - 06. 정책사업 전시 - 048





03-3.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 050

- 01. 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 051
- 02.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 053
- 03.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뉴 브런즈윅의 교육과운영> - 054
- 04.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 055
- 05. 예술강사 연수 <예술강사 만남의 날> - 056
- 06.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 058
- 07. 장윤규 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 059
- 08.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 060
- 09. 예술꽃 씨앗학교 - 061
- 1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064

04 홍보

- 04-1. 언론 홍보 - 072
- 04-2. 주요 보도 성과 - 073

05 참고자료

- 05-1. 연설 및 발표자료 - 078
 - 01. 개막강연 I - 078
 - 02. 개막강연 II - 084
 - 03. 폐막식 비전발표 - 101
- 05-2. 참가자 소감 - 106
- 05-3. 홍보 제작물 - 112

06 참여하신 분들

- 06. 참여하신 분들 - 114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01 행사 개괄

01

01_1 개최 배경

01_2 행사 개요

01_3 행사 주제 및 슬로건

01_4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01_5 요일별 프로그램

01. 행사 개괄

01-1. 개최 배경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하였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 되었던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선포된 이래, 각 국가별로 매년 5월 넷째 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예술교육계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도 함께 펼쳐진다.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1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천 개의 시간, 천 개의 삶'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에서 컨퍼런스, 워크숍, 거리공연 등 1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2 제 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2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 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에 따라 개최된 제 1회 행사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2013 제 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3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제 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387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14 제 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문화역서울 284를 거점으로 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년을 기념하여 총 303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딛고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는 소소한 축제의 장으로 국민적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01. 행사 개괄

01-2. 행사 개요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명칭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일시	2014년 5월 19일 (월) - 5월 24일 (토)
장소	문화역서울 284 및 전국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등
참가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문화예술교육계 전문가 등
홈페이지	www.arteweek.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1. 행사 개괄

01-3. 행사 주제 및 슬로건

주제 및 슬로건

—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핵심어

— 재생, 재구성, 재발견, 재해석

핵심과제



—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을 새로운 에너지와 다채로운 경험들로 채워나가는 ‘충전’의 과정이다. 예술적 경험은 단조로운 일상을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현장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몰입의 즐거움을 일깨워 스스로의 내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 맺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그렇기에 예술은 일상을 재발견, 또한 일상은 예술로 재충전되는 가운데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삶을 재생하다”라는 주제를 담아 재생의 과정을 공유, 공감함으로써 일상을 격려하고 지지하고자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와 의미에 초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BI

— 보통의 날, 평범한 날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되며 그 사람들의 삶이 모여 문화가 되고 예술이 만들어진다. 영감과 즐거움이 관계를 통해 퍼져 나가고 나와 주변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삼각형과 포인트 색상을 통해 2013년 BI를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BI에서 색상을 차분히 정리하였다.



01. 행사 개괄

01-4.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핵심과제별
프로그램

핵심과제	프로그램	유형
행복이 차오르다	개막음악회 <하루하루>	개막/공연
	개막강연 <일상을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	개막/강연
	예술체험 박람회 (서울/인천/전북)	전시/체험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구르는 몸, 노래하듯이>	체험
감성이 차오르다	SNS 캠페인 <우리가 사랑하는 말 語>	체험
	시민 참여형 전시 <말하는 벽화>	전시/체험
	부산_꿈의 오케스트라 향상 음악회 <부산,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공연
	꿈다락 전시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전시
	정책사업 전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전시
공감이 차오르다	특별한 인터뷰 <소년, 중년에게 묻다> <사이>	상영
	예술강사 연수 <예술강사 만남의 날>	포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서울/인천/대전/강원/부산)	포럼
	경북_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기관 워크숍	포럼
	폐막식	폐막
활기가 차오르다	해질녘 기자역 콘서트	공연
	충남_다같이 놀자 충남 한바퀴: 두 번째 이야기	체험
	전남_토요일에 놀아요~	체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체험
	예술꽃씨앗학교	체험
희망이 차오르다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체험/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체험/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체험
	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포럼
	부산_문화예술교육Days-봄	포럼/체험
	울산_문화예술교육 세미나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포럼

01. 행사 개괄

01-5. 요일별 프로그램

요일별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명	지역
5.18 (일)	체험	예술체험 박람회 (5.18~23)	문화역서울 284 RTO
	체험	충남 _ 다같이 놀자 충남 한바퀴: 두 번째 이야기 (5.18~21)	서산시 도적골교육농장
5.19 (월)	개막 행사	개막음악회 <하루하루>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개막강연 <일상을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체험	예술체험 박람회 (5.18~23)	문화역서울 284 RTO / 3등 대합실
5.20 (화)	체험, 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5.20~21)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체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5.20~22)	아리아트센터
	체험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구르는 몸, 노래하듯이>	문화역서울 284 RTO
	체험	충남 _ 다같이 놀자 충남 한바퀴: 두 번째 이야기 (5.18~21)	부여군 금강문화관
5.21 (수)	체험, 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5.20~21)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체험, 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5.20~22)	아리아트센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포럼	예술강사 연수 <예술강사 만남의 날>	문화역서울 284 RTO
	포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우리 선생님은 교실에서 oo해요>	인천 부평아트하우스
	포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우리들의 쉼터, 육래 상쾌 통쾌!>	대전 국제연극연구소H.U.E
	포럼	부산 _ 문화예술교육Days-봄 (5.21~23)	부산 감만창의문화촌
	체험	충남 _ 다같이 놀자 충남 한바퀴: 두 번째 이야기 (5.18~21)	세종시 초롱꽃어린이공원
	포럼	경북 _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기관 워크숍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22 (목)	포럼	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5.20~22)	아리아트센터
	포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예강이(예술강사)의 꿈같은 하루>	문화역서울 284 RTO
	포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봄봄봄 봄이 왔어요>	부산 부전역
	공연	특별한 인터뷰 <사이>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강당
	포럼	부산_문화예술교육Days-봄 (5.21~23)	부산 감만창의문화촌

	유형	프로그램 명	지역
5.23 (금)	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5.23~24)	전남 여성플라자
	포럼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토닥토닥 '사이'>	강원 북아트-라비
	포럼	부산 _ 문화예술교육Days-봄 (5.21~23)	부산 감만창의문화촌
	폐막	폐막식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5.24 (토)	강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5.23~24 / 5.26~27)	전남 여성플라자 울산 문화예술회관
	체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선유도 이야기관 3층
	체험	예술체험 박람회	전주 한옥마을
	체험	예술체험 박람회 (5.25)	인천 부평아트하우스
	체험	꿈다락 토요일학교	전국
	공연	부산_꿈의 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부산,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

	유형	프로그램 명	지역
상시	체험	예술체험 박람회 (5.18~23)	문화역서울 284 3등 대합실 / RTO
	전시	정책사업 전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5.19~23)	문화역서울 284 1,2층
	공연	특별한 인터뷰 <소년 중년에게 묻다>, <사이> (5.19~23)	문화역서울 284 부인대합실
	체험	SNS 캠페인 <우리가 사랑하는 말 語> (4.14~5.24)	www.artweek.kr / 서울역 앞 거리
	체험	시민 참여형 전시 <말하는 벽화> (5.21~5.23)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공연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5.20~5.22)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전시	꿈다락 전시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전시회 (5.22~24)	선유도 이야기관 2층
	체험	예술꽃 씨앗학교 (5.19~23)	전국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02 추진 과정 및 성과

02

02_1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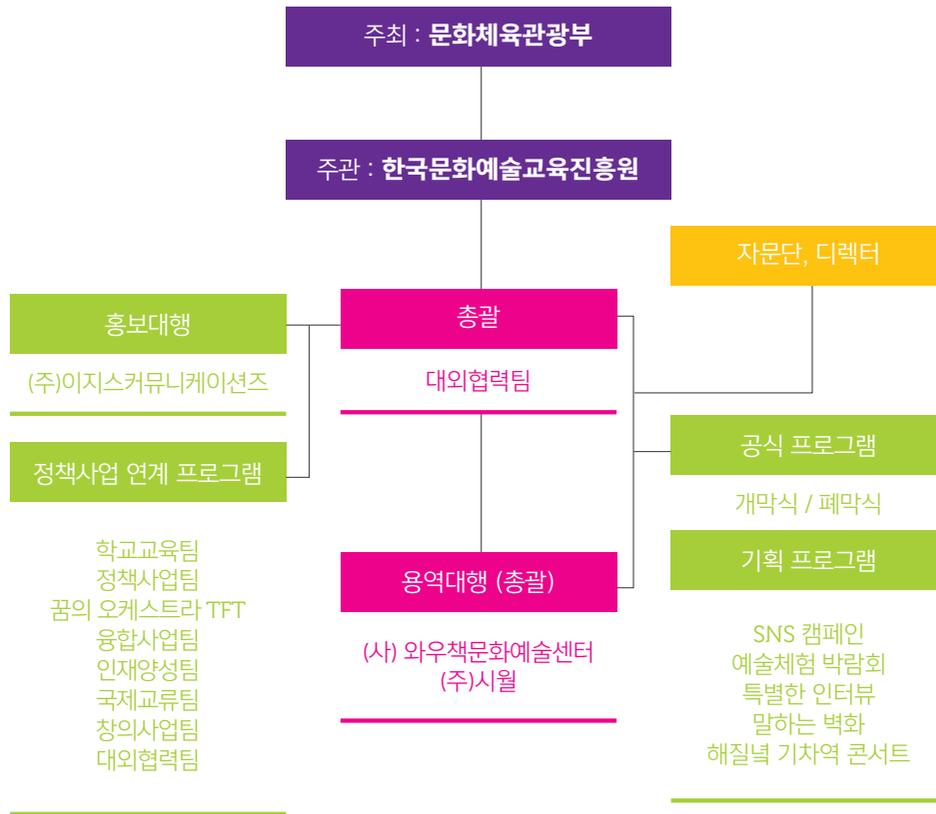
02_2 추진 과정

02_3 추진 성과 및 평가

1. 총괄 성과 개요
2. 성과와 과제

02. 추진 과정 및 성과

02-1. 추진 체계



02. 추진 과정 및 성과

02-2. 추진 과정

추진 내용	13년				14년											
	1월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															
행사 개최 준비 회의	■															
행사 개최 계획 수립		■	■													
디렉터 섭외 및 특별 프로그램 기획		■	■													
본 프로그램 기획		■	■													
행사 개최 계획안 보고			■													
국내 행사 운영 대행사 입찰 및 선정			■	■												
슬로건 도출 및 BI 디자인				■	■	■	■									
주간행사 실행단 구성				■	■	■	■									
기획 프로그램 실행 계획 수립				■	■	■	■									
홍보 계획 수립				■	■	■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	■	■						
개·폐막식 계획 및 초청 연사 확정							■	■	■	■						
본 프로그램 계획 확정							■	■	■	■						
대외 연계 행사 협의 및 확정							■	■	■	■						
행사 방향 수정 변경									■							
프로그램별 행사 실무									■	■	■	■	■	■	■	■
공식 홈페이지 오픈															■	■
주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
개막식 내빈 초청장 발송 및 참석 확인															■	■
언론 매체 홍보															■	■
행사 개최																■
평가 회의 및 결과 보고																■

02. 추진 과정 및 성과

02-3. 추진 성과 및 평가

01. 총괄 성과 개요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구분	운영프로그램 수 (건)
개·폐막식	3
기획 프로그램	6
사업 연계 프로그램	294
합 계	303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프로그램 구분	참가자 수 (명)
개·폐막식	707
기획 프로그램	4,172
사업 연계 프로그램	15,441
합 계	20,320

홍보 보도 실적

항목	방송	일간지	온라인	총 계
게재기사 수	9	68	83	160

주요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프로그램 구분	지역	일시	장소	참여인원(명)
개막음악회	서울	5.19 (월)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284
개막강연	서울	5.19 (월)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140
폐막식	서울	5.23 (금)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423
예술체험 박람회	서울	5.18 (일) - 23 (금)	문화역서울 284 RTO / 3등 대합실	391
	전북	5.24 (토)	전주 한옥마을	1,000
	인천	5.25 (일)	인천 부평아트하우스	66
	합 계			1,457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서울	5.20 (화) - 21 (수)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47
	전남	5.23 (금) - 24 (토)	전남 여성플라자	39
	울산	5.26 (월) - 27 (화)	울산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35
	합 계			121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서울	5.20 (화) - 22 (목)	아라아트센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43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서울	5.24 (토)	선유도 이야기관 3층	1,733
예술강사 연수 <예술강사 만남의 날>	서울	5.21 (수)	문화역서울 284 RTO	86

프로그램 구분	지역	일시	장소	참여인원(명)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서울	5.22 (목)	문화역서울 284 RTO	80
	인천	5.21 (수)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0
	부산	5.22 (목)	부산 부전역	23
	대전	5.21 (수)	대전 국제연극연구소 H.U.E	12
	강원	5.23 (금)	원주 북아트 '라비'	22
	합 계			
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서울	5.22 (목)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210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구르는 몸, 노래하듯이>	서울	5.20 (화)	문화역서울 284 RTO	29
명예교사 장윤규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얼렁뚱딱>	서울	5.23 (금)	문화역서울 284 RTO	30
특별한 인터뷰 <사이> 상영회	서울	5.19 (월) - 23 (금)	문화역서울 284 부인대합실	400
예술꽃 씨앗학교	전국	5.19 (월) - 23 (금)	전국	5,87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국	5.24 (토)	전국	6,651

문화역서울 284
일자별 참가자 수

일시	인원
5.18 (일)	134
5.19 (월)	410
5.20 (화)	317
5.21 (수)	549
5.22 (목)	751
5.23 (금)	489
총 계	2,650

주요성과**02. 성과와 과제**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운영되었다. 또한, 다양한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 일반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

1, 2회 주간행사에서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4년 주간행사에서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매체인 온라인/SNS를 통한 사전캠페인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중의 참여 기회를 한 단계 더 확대하였다.

— 거점공간 선정 및 활용을 통하여 프로그램별 연계성 확장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서울역 소재 문화역서울 284를 거점공간으로 지정하여 전체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각 프로그램별 연계성 확장은 물론 행사의 집중도를 향상하였다.

— 사회 분위기 반영한 행사운영을 통해 국민의 호감도 증대 및 문화예술교육의 순기능 공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의 강화

정책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일반시민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수혜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특히 진흥원 사업의 주요 파트너인 예술강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수혜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적 인프라 확대

광역센터와 협업을 통한 기획 프로그램(예술체험 박람회) 진행을 통해 향후 기획 프로그램의 지역으로 확대 토대 마련은 물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발굴을 통한 인적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향후과제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례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주간행사 추진 시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핵심 주제(슬로건) 연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진흥원의 연간 비전에 부합하는 주제를 적용한 주간행사 슬로건을 이후 연내 정책사업 홍보 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필요

2014년 주간행사에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수 구성되어 높은 호응도를 얻은 만큼, 향후 주간행사 시 일회성으로 구현되는 전시 외에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 제고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 모객 방안 마련 확대

예술체험 박람회 등 인지도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모집된 인원 외 현장으로 찾아오는 관객이 다수 발생하였다. 사전 공개 모객을 통하여 홍보 강화는 물론 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획자/운영대행사 간의 구조 마련

기획완료 후 대행사를 선정하여 투입하는 구조의 한계점으로 기 선정된 디렉터 및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기획단계(전년도 12월)부터 대행사 투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해소 및 운영 대행사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보물 제작 점검을 통한 예산절감

매년 새롭게 제작되는 소모적인 홍보물(웹페이지, 프로그램북 등)의 경우 정보 제공 기능을 높이되 구조 및 분량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 홍보 강화

행사 중 혹은 사후 홍보가 주를 이루는 언론홍보 외에 2014년 시범 시도된 온라인을 활용한 사전 캠페인의 강화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 제고를 위한 사전 언론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03 행사 세부 결과

03

03_1 공식 프로그램

03_2 기획 프로그램

03_3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03_1 공식 프로그램

03-1

- 01. 개막음악회
- 02. 개막강연
- 03. 폐막식

01. 개막음악회

▲개막/공연형

하루하루

| 일시 _ 2014년 5월 19일 (월) 17:00~18:3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참가 _ 284명

기획 운영 _ (주)신촌 커뮤니케이션

주요내용

— 일반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글과 사진을 공모하여 6개의 이야기를 선정, 선정된 사연들을 바탕으로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 사연과 함께 곡을 연주한 음악회 형식 프로그램. 시민들의 일상, 보통의 삶이 예술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예술과 일상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몸소 체험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프로그램	공연자/연사
1 환영 및 오프닝 퍼포먼스	마임이스트 오쿠다 마사시
2 남들 어깨에 뱃꽃 잎 떨어지던 날, 내 어깨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다	사연: 임정규 작곡: 박영란
3 서른 다섯 살의 4월	사연: 김정은 작곡: 이강규
4 <주제강연>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5 못다 이룬 배우의 꿈	사연: 장복희 작곡: 박재은 작사: 이민숙
6 장수군의 비올리스트	사연: 이우현 작곡: 김범기
7 장관이기 전에 저도 샐러리맨입니다	사연: 유진룡 작곡: 유범석
8 을지로 입구역의 빅판	사연: 안광수 작곡: 우효원
9 개막선언	





성과와 과제

— 일반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하여 사연을 음악으로 작곡한다는 새로운 기획을 통해 시민이 관람객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무대 위, 개막 행사의 중심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었다.

— 식순에 따른 전형적인 개막 행사 및 관계자(VIP)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음악회 콘셉트를 차용하여 공식행사 기획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02. 개막강연

▲ 개막/강연형

일상을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

| 일시 _ 2014년 5월 19일 (월) 18:30~19:3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참가 _ 140명

기획 운영 _ (주)시월

주요내용

— 예술교육의 영향력 있는 교육자이자 미국 엘 시스템아 수석고문인 에릭부스(Eric Booth)초청, 일상을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 프로그램. 우리가 예술을 통해 또는 예술의 기술을 적용해 일상을 얼마나 매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동사로서의 예술을 교육하며 이것은 주변에 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평범함 속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성과와 과제

— 개막식을 1부 개막음악회, 2부 개막강연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개막강연을 통하여 주간행사 및 문화예술교육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시민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03. 폐막식

▲ 폐막/공연형

- | 일시 _ 2014년 5월 23일 (금) 17:00~18:30
-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 참가 _ 423명
- 기획 운영 _ (주)시월

주요내용

—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리한 공식 폐막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헌자를 치하하며 참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1 하이라이트 영상	2014 주간행사 하이라이트 영상
2 성과 및 비전 공유	2014년 주간행사 성과 및 향후 비전 공유
3 시상식	문화예술교육 공헌자 시상식
4 기념촬영	관계자 기념촬영
5 리셉션	시민, 행정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킹 자리

성과와 과제

— 주간행사의 성과 및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월호 침몰 등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다 진중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주간행사를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았다.



03_2 기획 프로그램

03-2

01. SNS 캠페인
02. 특별한 인터뷰
03. 예술체험 박람회
04. 시민 참여형 전시
05.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06. 정책사업 전시

01. SNS 캠페인

체험형

우리가 사랑하는 말 語

일시 _ 2014년 4월 14일 (월) ~ 5월 24일 (토)

장소 _ www.arteweek.kr / 서울역 앞 거리

참가 _ 246명

기획 운영 _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주)시월

주요내용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평범한 말들을 활용한 시 창작 이벤트를 진행. 예술창작의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 SNS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위로와 안부의 댓글을 남기는 1단계와 댓글 속 단어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자신만의 시를 만들어보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의 결과물인 SNS 댓글은 서울역 앞 거리에 가로등 배너로 전시되고 2단계의 결과물인 시는 우수작 20편을 엮어 온라인 시집 '당신의 말을 기억하게 되는 날-우리가 사랑하는 말 語 모음집'으로 발간하였다.

성과와 과제

— 주간행사 최초로 진행된 사전 캠페인으로 호응도 및 참여도가 높았으며 사전 홍보에 효과적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영 중간에 홍보 및 진행 규모를 축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일반 시민들과의 접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홍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 실행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02. 예술체험 박람회 (서울)

▲ 체험형

| **일시** _ 2014년 5월 18일 (일) ~ 23일 (금) 14:00~18: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RTO 및 3등 대합실 (5.18~23)
전주 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 주차장 (5.24)
인천 부평아트하우스 (5.25)

참가 _ 1,457명

기획 운영 _ 김태황

주요내용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예술가와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 전국 3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2013년까지 개·폐막식 당일만 진행 되었으나 기간을 확대하여 2014년에는 서울에 마련된 거점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서울)

팀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KKHH	사이 짓기 워크숍	두꺼운 책을 쌓아올려 집을 만들거나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일상적인 사물에 상상을 붙여넣어 우리 사이의 공간을 지어봅시다. 서울역 틈새틈새, 물건을 나열하거나 쌓아올리며 비밀스런 기지를 만들어 보세요. 구석 어딘가에 숨겨 놓을 수도 있고, 중앙홀 정 가운데를 차지해도 괜찮아요.
범과학	본능미용실	본능미용실에서 나만의 본능캐릭터를 그려요. 그리고 스크린에서 전우주의 친구들을 만나요. 내가 하는 동작을 따라 본능캐릭터가 움직이고 전우주의 친구들도 반응을 해줄거예요.
양반김	놓치지 마세요!! 양반김 프리미엄 마감임박!!!	막무가내로 쌓여진 현수막 무더기에서 무작위로 집어온 현수막 속의 단어들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현수막을 제작해보세요. 고객맞춤 현수막!!!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마감임박!
고무신	여기는 나무대장간	귀 파는 도구는 있는데 코 파는 도구는 왜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나만을 위한 도구를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나무 대장간입니다. 도구를 상상하고 딱, 나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 봅시다.
황수경 뮤지컬	Space Flying	서기 2999년으로 상상여행을 떠납니다. 이 워크숍은 참여자들이 무대와 상황을 선택하여 연출하는 짧은 연극입니다. 연기가 어렵다? 춤은 어떻게 추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의상 디자이너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2999년으로 초대합니다.
공공미술 프리즘	나무조각 염전	나무 조각으로 함께 멋진 퍼즐을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그 질문은 세 개의 질문상자에서 뽑고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이 워크숍은 도구상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 재료를 만지고, 조합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바닥에 그리는 작업입니다.
한석경	2시부터 6시까지의 우리	이것을 주워서 길을 만들고, 저것을 주워서 가게를 만들고, 그것을 주워서 은행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 저것, 그것을 모아 털고, 닦고, 칠해서 서울역 지도로 변신! 서울역 주변 곳곳에서 수집한 물건이 갖는 기억으로 지도를 그려봅시다. 무엇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조성현	소리발견	마이크를 만들어요. 내가 만든 마이크로 소리를 녹음해요. 녹음한 소리로 함께 연주해요. 이 워크숍에서 발견한 소리와 연주한 곡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발견하러 오세요.
최두수	달 잔 만들기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땅콩을 담아 먹거나, 연필꽂이로도 사용해요. 이 워크숍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컵이 있어요. 어떻게 붙여서 무엇을 만들까 생각해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프로그램 구성 (전북)

팀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고보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다	폐지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돌아날 수 있을까요? 이 워크숍에서는 버려지는 폐지에 작은 씨앗을 심을거예요. 그리고 간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돌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장근범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당신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처리해드립니다. 카메라와 핸드폰에 숨어있는 당신의 일상만 준비해 오세요.
임택준	sacrifice 20140416.848AM	눈물이 차올라서 하늘을 본다. 슬픔이 차올라서 두 눈을 감는다. 미안해요.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그날의 사건과 안타까운 영혼에 대해 기억하고 보내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상훈	불편함 뒤에 오는 질문	좁고 불편한 길을 따라 지나가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얻게 되는 걸까요? 이 워크숍에서는 아티스트가 물리적, 의도적으로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불편한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할거예요. 과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일순	바람에도 소리가 있네!	나와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소리로 느껴보세요. 그 소리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공상, 상상의 이미지들을 꺼내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 구성 (인천)

팀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최성욱	낙서허가구역	작은 도화지는 우리가 꿈꾸는 상상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벽에는 낙서금지란 없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도 제재당하지 않습니다. 잘 그릴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마음껏 표현해보세요.
오석근	팡팡 사진을 찍어라!	의상과 소품을 입고 트램폴린 위에서 점프를 해보세요. 그리고 상상했던 이야기의 동작을 취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 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팡 뛰어 찰칵!
박충의	'아지트 하우스'를 우리 손으로 똑딱	여기 망치와 톱, 타카건 그리고 버려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고물상에서 수거해온 폐가구와 고철을 조립하여 아지트 하우스를 만들거예요. 색 바랜 글자와 흔적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멋스러운 건물을 지어보세요.
최환	무능력과 무식한 디자이너는 사실 잘 몰라요	폐 현수막으로 옷과 구두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최환'과 함께 우리 일상의 물건들에 쓰임을 달리 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멋진 걸 만들거예요!
한철희	쉽게 맛보는 디제잉	디제잉을 통해 음악을 친숙하게 느껴본 적 있나요? 이 워크숍에서는 디제잉으로 음악을 느껴보고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놀 거예요. 어떤 파티가 열릴까요?

성과와 과제

— 단순한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체험 행사에서 나아가, 예술가 그룹이 각자의 예술 활동을 확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 활발한 홍보 진행이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참여자 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거점공간인 문화역서울 284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의 제약 사항이 많아 참여 예술가 활동에도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03. 특별한 인터뷰

공연형

/ 소년, 중년에게 묻다
/ 사이

| 일시 _ 2014년 5월 19일 (월) ~ 23일 (금)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부인대합실 및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주관단체 _ 독립다큐멘터리 PD 협회, 문화예술 놀다

참가 _ 400명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 2,034명 (문화역서울 284 티켓 발권 관람객)

주요내용

2012년 <담談 : 학교 담을 넘는 이야기>와 2013년 <고함, 내 안에 소리치는 울림>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친구와 또래, 청소년과 부모가 소통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두 달 동안 사전 미디어교육을 받은 10대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님(중년층)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소년, 중년에게 묻다>와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은 <사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문화역서울 284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구분	참여자	일정	장소
<소년, 중년에게 묻다>	(제작참여) 김문송, 조희정, 최창용, 박서빈, 이원화	5.19 (월)~23 (금) 10:00~19:00	문화역서울 284 부인대합실
<사이>	(인터뷰 참여)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9반 전원 및 3학년 (강무혁, 김치현, 김희산, 홍채린)	5.19 (월)~23 (금) 10:00~19:00	문화역서울 284 부인대합실
		5.22 (목) 15:30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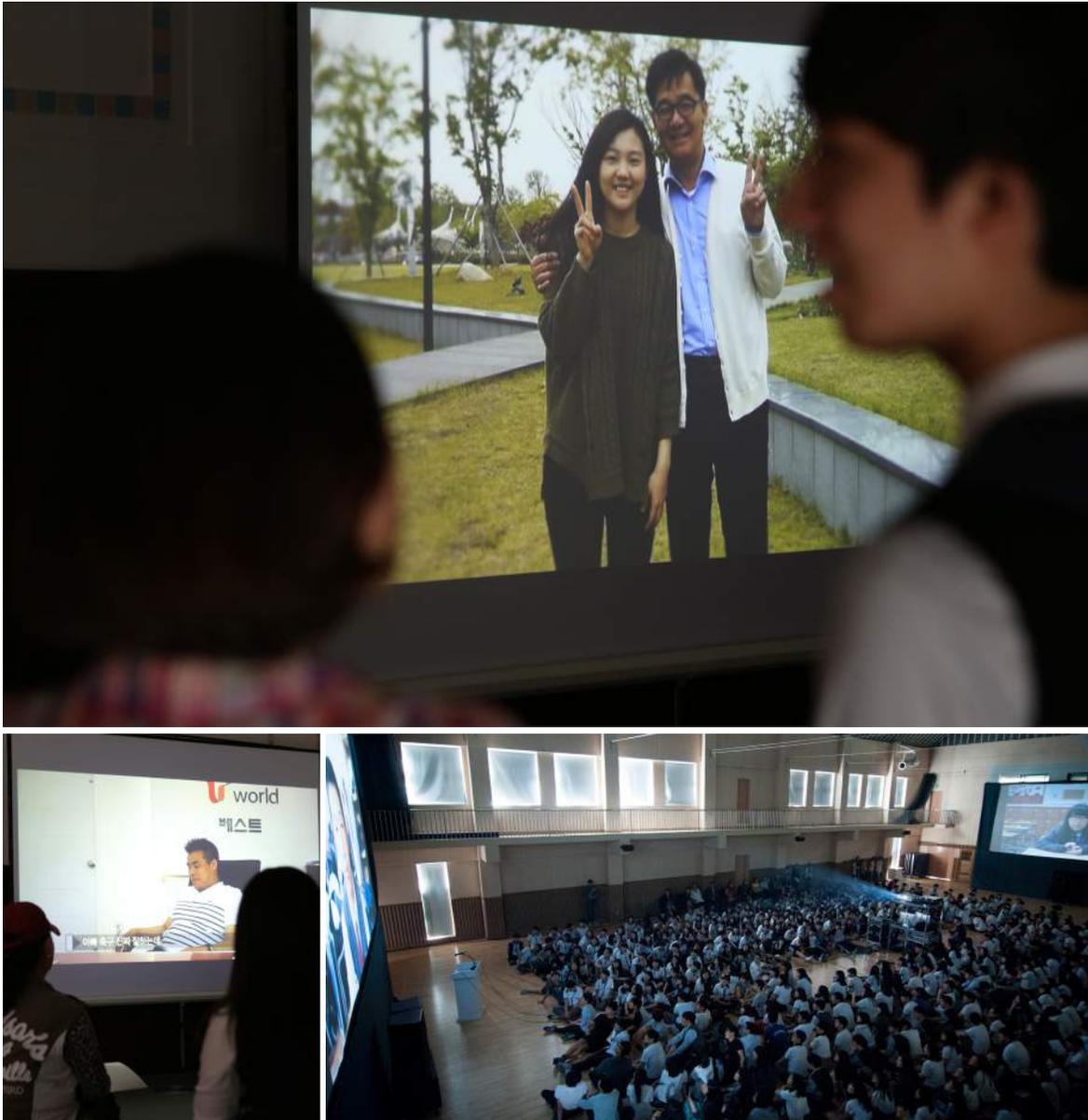
부인대합실 상영표

제목	유형	비고
1 사이	다큐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획 : 특별한 인터뷰
2 소년, 중년에게 묻다	다큐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획 : 특별한 인터뷰
3 담談, 학교벽을 넘는 이야기	다큐	2012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4 빨래	창작물	2013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탐라는 영화> (이명세 명예교사)
5 직면	창작물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6 투게더	창작물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7 꿈꾸는 조침사	창작물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시시콜콜 영화박물관 점령기
8 학교의 아이들, 예술강사를 말하다	다큐	'예술강사를 말하다' 다큐멘터리 4부작 중

성과와 과제

— <소년, 중년에게 묻다>는 미디어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각자의 부모님을 인터뷰하는 콘셉트로 기획 및 과정이 행사 취지에 부합하였으며, 결과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과물의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영공간 확대를 고려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사이>의 경우 서울 디자인고를 거점으로 촬영 및 상영까지 이루어져 결과물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상의 주제 메시지가 약하여 향후에는 주제 메시지 보완이 필요하다.



04. 시민 참여형 전시

체험형

말하는 벽화

| 일시 _ 2014년 5월 21일 (수) ~ 23일 (금)
10:00~19: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참가 _ 1,327명

기획 운영 _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주요내용

— 사전 캠페인에서 선정된 시민들의 일상 단어들과 기획자들이 제안한 단어 등 800여개의 포스트잇으로 구성된 벽을 아름다운 벽화로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전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주고받은 일상의 말들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공감으로 일상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시민들이 단어 포스트잇을 옮겨 붙여가며 의미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벽화는 다채로운 색감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는 개개인의 소통의 경험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작품 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예술창작에 있어 공동의 기억과 경험의 가치를 선사하였다.

성과와 과제

- 시민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기획, 운영되었다.
- 시민들의 참여가 폐막식의 배경 무대로 활용되어 본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 추후 유사행사 진행 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및 모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05.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 공연형

| **일시** _ 2014년 5월 20일 (화) 18:00~19:00,
5월 21일 (수) ~ 22일 (목) 17:30~18:3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참가 _ 100명

기획 운영 _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주요내용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일상이 교차하는 옛 기차역, 문화역서울 284가 갖는 장소적 특성 및 공간적 매력을 살려 시민들과 편안하게 만들어 간 해질녘의 음악 콘서트 프로그램.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말하는 벽화'를 배경으로 식물들 사이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일시	아티스트	소개
5월 20일 (화) 18:00~19:00	피터&솔래	피터와 솔래는 기타 치며 노래하는 피터와 랩하는 솔래가 함께 하는 듀오이다. 이들에게 공연하러 가는 길은 여행과도 같다. 사소한 순간들조차 빛나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행기를 쓰듯 악보에 여행에서의 이야기들을 담곤 한다.
5월 21일 (수) 17:30~18:00 18:00~18:30	코스모스 슈퍼스타	그리움과 애듯함, 달콤한 기분을 노래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신스팝, 일렉트로닉 팝 사운드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신현희와김루트	소소한 일상의 조각들을 노래하는 2인조 혼성 밴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사투리 내레이션으로 관객에게 신선한 재미와 공감을 선사한다.
5월 22일 (목) 17:30~18:00 18:00~18:30	앵드야	해금과 기타 연주, 판소리 보컬로 구성된 퓨전국악 3인조 혼성 밴드. 국악에 젊은 감각과 현대적 재해석이 더해져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신나는 섬	차가운 일렉트로닉 사운드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언플러그드 어쿠스틱 사운드를 지향하는 6인조 혼성 밴드. 자연의 소리를 담은 따뜻한 음색과 낭만적이고 유쾌한 연주로 고단한 일상을 달랜다.





성과와 과제

-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공간을 변화시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 문화역서울 284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부대행사를 넘어선 기획과 타 프로그램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



06. 정책사업 전시

 전시형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일시 _ 2014년 5월 19일 (월) ~ 23일 (금)
10:00~19: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서측복도,
1,2등 대합실, 2층 복도

참가 _ 2,034명

기획 운영 _ (주)시월

주요내용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들을 대상별, 지역·공간별로 소개한 서측복도 전시, 2005년부터의 9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1·2등 대합실의 정책사업 전시, 명예교사 프로그램과 롤링 카메라 전시를 정리한 2층 전시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현장의 이야기,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과정을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내용

구분	내용	전시공간
들어가기	여가 없는 삶에 대한 소소한 불만들 우리 일상(생활) 속 곳곳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찾아보기	서측복도 (1층)
문화예술교육 사업 소개	참여 대상별로 살펴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소개와 현장 들여다보기	
참여자 이야기	참여자들의 바뀐 일상 (인물사진, 소감 문구, 영상 자료)	
정책사업의 흐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대기 및 성과, 예술강사 활동 소개	1, 2등 대합실 (1층)
명예교사 프로젝트	롤링카메라 : 끝나지 않은 여행 명예교사의 물건	그릴 앞 복도 (2층)





성과와 과제

- 전시 공간 별로 성격을 구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서측복도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와 효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스토리가 다양한 영상자료와 함께 구성되었다.
- 9년의 역사를 다양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1·2등 대합실은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 타 분야 관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 명예교사 프로젝트 <명예교사의 물건> <롤링 카메라, 끝나지 않은 여행>은 시민들의 참여로 인상적으로 진행되었던 두 사업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 문화역서울 284의 공간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진행방향이 여러차례 수정되는 등 단기 간의 전시를 위해 투입된 노력에 비하여 관람객이 적어 비용대비 효율측면에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시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03_3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03-3

01. 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02.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03.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마뉴 브런즈윅의 교육과운영>
04.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05. 예술강사 연수 <예술강사 만남의 날>
06.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07. 장윤규 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08.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09. 예술꽃 씨앗학교
10.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01. 포럼

▲ 포럼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 일시 _ 2014년 5월 22일 (목) 13:00~18: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참가 _ 210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지역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발표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및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일정	발표 주제	사회·발제자	
Opening			
오프닝	13:00~13:15	개회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3:15~13:25	동영상 오프닝	
Session 1.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상상력, 사회를 만나다			
발제	13:30~14:00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백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14:00~14:30	지역성 가치 안의 문화예술교육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 집 관장
	14:30~15:00	사회적 문제의 개선,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이광준 바람부는 연구소 소장
	15:00~15:10	질의응답	
	15:10~15:30	휴식	
Session 2. 문화예술교육,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례 발표	15:30~15:50	기업과 만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김민지,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사무국장
	15:50~16:10	사람, 그리고 소통을 가르쳐준 문화예술교육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16:10~16:30	재생과 회복, 그리고 창조의 동력 문화예술교육 : 감자꽃스튜디오의 사례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Session 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종합토론)			
토론	16:30~17:45	문화예술교육으로 소통하는 사회통합의 방향성 제고	좌장 :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발제자 / 사례발표자 토론자 조현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숙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사무처장 이유정 / 프로젝트 언 대표 박호상 / 예술강사(작가)
네트워킹	17:45~18:00	폐회 및 마무리 참여자 간 자유교류	사회자

성과와 과제

— 지역성, 사회적 문제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으며, 2일만에 포럼 참여인원 200명 모객 완료 및 90명이 대기하는 등의 관심을 통하여 정책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 대한 관계자 및 일반인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일반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각 발제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시간 안배 고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02.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강의, 체험형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일시 _ 2014년 5월 20일 (화) ~ 27일 (화)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그릴홀, 전남, 울산

참가 _ 121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교류팀

지역워크숍 공동주관 _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내용

— 음악/미술/연극/무용 등 예술적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조성 및 실행방법을 공유하는 워크숍. 강의/체험실습에 기반한 양질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초청강사 : 찰리머피, 실비아 지오바노니 (PYE : 청소년역량강화센터 CEO 및 주강사)

성과와 과제

— 강의/체험/토론/실습/피드백/영상시청 등 다양하게 구성된 워크숍 커리큘럼을 통해 참가자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선정함에 따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워크숍 신청 조기 마감으로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차후 수혜자 수 확대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03.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강의, 체험형

시스템아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일시 _ 2014년 5월 20일 (화) ~ 22일 (목)

장소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층 아우름홀,
아라아트센터 3~4층

참가 _ 543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오케스트라TFT

주요내용

종이악기 만들기 워크숍 및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의 지속성과 자원마련은 물론 교육 노하우, 아동행동관리의 실제 등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초청강사 : 캔 맥트라우드, 에런 맥파렌, 케이티 베스바터 (캐나다 시스템아 뉴 브런즈윅)

성과와 과제

캐나다 뉴 브런즈윅을 통해 해외 엘시스테마의 모범사례를 국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관계자들과 공유하여 국내 엘시스테마 교육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종이악기 제작 워크숍, 강의 및 사례발표 등 다양한 진행방식을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되었다.



04.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체험형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 일시 _ 2014년 5월 22일 (목) ~ 25(일) / 결과전시회
2014년 5월 24일 (토) / 워크숍

장소 _ 서울 선유도이야기관

참가 _ 1,773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융합사업팀

주요내용

— '내 꿈의 세상'이라는 주제 하에 어린이들이 각자의 상상 속 세계를 15m 길이의 캔버스 위에 다양한 도구와 색감, 매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워크숍. 독일 리틀아트 프로그램 디렉터 엘레나 앵커의 진행으로 질의응답을 통한 브레인스토밍 및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꿈 속 세계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또한 2012년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초청강사 : 엘레나 앵커 (독일 Little Art 대표)

성과와 과제

— 주간행사를 계기로 초청워크숍 및 결과전시회를 통하여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일 리틀아트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 및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개발하였다.

— 리틀아트 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워크숍 참여 인원을 제한하였으나, 이후에는 보조강사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05. 예술강사 연수

 포럼형

예술강사 만남의 날

일시 _ 2014년 5월 21일 (수) 14:00~18: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RTO

참가 _ 86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양성팀

주요내용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예술강사 관련 전세계적인 동향 소개, 예술강사 간 수업 노하우 및 최신 정보 공유, 주제별 토론, 예술강사에 의한, 예술강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파트너인 예술강사들의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시간	내용	
14:00~14:30	관계잇기	등록 및 참여자간 아이스브레이킹
14:00~14:35		한지를 활용한 즉흥무용 - 다시 피는 민들레 : 박민우(무용), 임차영(무용)
14:35~14:40	행사소개/인사말/축사	
	인사말 /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14:40~15:20	기조강연	예술강사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깊은 풀' 구축 (Digging 'deep pools': Securing the Future of Teaching Artistry) : 브래드 해스만(Brad Haseman) /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QUT) 창의산업부 부학장
15:20~15:35	생각잇기	사회적 이슈와 문화예술교육 디자인 : 권혜영(무용)
		문화예술교육(음악/국악)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박지영(국악)
		사회적 브리지로서의 예술강사 : 김현영(만화애니/미술)
15:35~16:35	세션 모임	사회적 이슈와 문화예술교육 역할 : 모더레이터 권혜영(무용)
		예술교육의 심리사회적 기능 : 모더레이터 박지영(무용)
		인터랙티브 모션 아트 워크숍 : 모더레이터 김현영(만화애니/미술)
16:35~16:50	휴식	예술강사! 빛의 중심에서 만나다
		커뮤니티 댄스-몸아~ 놀자!
16:50~18:00	열정잇기	강강수월래
		판공에서 아리랑까지

성과와 과제

— 학기 중 연수 기획 등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예술강사 기획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술강사 간 네트워킹 및 수업사례,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감대 확대, 예술강사로서 자존감 향상 및 사명감 고취에 기여하였다.

— 향후 많은 예술강사 참여가 수월한 방학기간에 1박2일간 진행하고, 본 연수의 취지에 맞게 예술강사 기획단과 참여 예술강사 전원이 함께 공연 제작 및 발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06.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포럼형

(서울/인천/대전/부산/강원)

| 일시 _ 2014년 5월 21일 (수) ~ 23일 (금)

장소 _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강원

참가 _ 187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

주요내용

— 2012년 추진되었던 '예술강사의 발'의 지속성을 위하여 마련된 예술강사 교류의 장으로, 예술강사가 직접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부산, 강원 지역에서도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성과와 과제

— 예술강사 간 교류의 자리가 부족한 시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로 예술강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향후에는 5월 넷째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임이 더욱 활발히 홍보되어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관계자인 학교교육 현장 교사 등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07. 장운규 명예교사와 함께 하는 특별한 하루

체험형

아빠와 함께 얼렁뚱딱

일시 _ 2014년 5월 23일 (금) 16:00~19: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RTO

참가 _ 30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융합사업팀

주요내용

— 건축가 장운규 명예교사와 함께, 아빠와 아이가 매뉴얼 없이 블록을 조립해보며, 친밀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성과와 과제

— 가족 단위 참여의 모집을 통해 명예교사 프로그램 참여자층 다양화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매뉴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방식의 블록 조립을 통해 아빠와 자녀간 소통 향상 및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프로그램이 평일에 진행됨에 따라 퇴근 시간 등 제약사항으로 인해 일부 참가자들의 참석이 늦어져 프로그램 시작이 지연되었다. 향후 동일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대상을 고려한 일시 선정이 필요하다.



08. 아르떼 365 독자나들이

구르는 몸, 노래하듯이

체험형

일시 _ 2014년 5월 20일 (화) 15:00~18:00

장소 _ 문화역서울 284 RTO

참가 _ 29명

주관부서 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외협력팀

주요내용

— 나의 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체 탐색, 리듬과 공간, 반응과 관계 등 다양한 신체적 경험들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여자 간의 유연적 상호작용을 통해 여섯 개의 몸짓을 자유롭게 조합, 그룹 퍼포먼스도 전개하여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성과와 과제

— 사전 섭외된 문화역서울 284 RTO 공간을 염두에 두고 공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수업 분위기와 진행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09. 예술꽃 씨앗학교

체험형

일시 _ 2014년 5월 19일 (월) ~ 23일 (금)

장소 _ 전국

참가 _ 5,878명

주요내용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및 학부모 초청 프로그램 등 예술꽃 씨앗학교 정례수업과 연계하여 특별한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역	학교명	주제(프로그램명)	날짜
서울	개화초등학교	음악극 기본교육 및 음악극 공연 연습	5. 22 (목)
	창천초등학교	뮤지컬 실기	5. 23 (금)
대전	남산초등학교	국악관현악 실기	5. 19 (월)
세종	장기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 운영을 통한 감성교육	5. 21 (목) ~ 22 (토)
		오케스트라단 연주회 감상을 통한 감성교육	5. 19 (월)
대구	덕성초등학교	관악합주단 합주 연습	5. 19 (월) ~ 23 (금)
		예술 동아리 활동	5. 20 (화)
부산	서명초등학교	관악동아리 실기, 국악동아리, 전자피아노동아리 실기	5. 19 (월), 21 (수)
		관악동아리 실기, 국악동아리, 전자피아노동아리 실기	5. 20 (화) ~ 23 (금)
경기	조안초등학교	연극놀이 / 시각디자인 / 작가와의 만남	5. 19 (월)
	하점초등학교	도자기 화분 만들어 나만의 그림 그리기	5. 19 (월)
	수남초등학교	전통 악기 연주	5. 19 (월)
		주제 중심 움직임 교육 (너랑 나랑 우리랑)	5. 19 (월) ~ 21 (수)
		시각디자인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도 예술인가?)	5. 21 (수) ~ 23 (금)
	육천초등학교	퓨전오케스트라 및 다양한 악기 실기	5. 21 (수)
	만선초등학교	국악관현악 실기	5. 22 (목)
강원	서상초등학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드 디자인하기	5. 19 (월)
		지역주민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라인댄스, 의상디자인 교실 운영	5. 22 (목)
	인제남초등학교	다양한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 익히기	5. 21 (수)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5. 20 (화)

충북	수안초등학교	국악관현악 실기 "내가 배우는 악기, 네가 배우는 악기"	5. 19 (월), 22 (목)
	칠성초등학교	서양관악 실기	5. 19 (월), 23 (금)
충북	오선초등학교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문화 예술 감성 기르기	5. 19 (월), 20 (화)
		클래식 기타 연주를 통해 문화 예술 감성 기르기	5. 19 (월), 22 (목)
		합창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 감성 기르기	5. 20 (화), 21 (수)
		우쿠렐레 연주를 통해 문화 예술 감성 기르기	5. 21 (수), 22 (목)
충남	거산초등학교	문화 예술 학생 동아리 활동	5. 19 (월), 21 (수)
	산서초등학교	설치 미술 작가와 함께하는 텃밭 조형놀이	5. 19 (월)
		텃밭 축제와 함께하는 디자인 페스티벌	5. 21 (수)
		임림미술관 국제 미술제 환경미술 체험 활동	5. 23 (금)
	성남초등학교	뮤페라 '초록호두' 탭댄스 안무 실기	5. 19 (월)
		뮤페라 '초록호두' 뮤지컬 안무 실기	5. 21 (수)
		연극 '초록호두' 실기	5. 22 (목)
		뮤페라 '초록호두' 기악 실기	5. 22 (목)
		나무와 함께 하는 공예 실기	5. 22 (목)
		뮤페라 '초록호두' 무대미술실기	5. 22 (목)
		뮤페라 '초록호두' 성악 실기	5. 23 (금)
		뮤페라 '초록호두' 기악 실기	5. 23 (금)
	송남초등학교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5. 19 (월), 20 (화), 21 (수)
		탐색! 친구 인터뷰~!	5. 20 (화)
시나리오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시나리오로 쓸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다.		5. 20 (화) ~ 21 (수), 22 (목), 23 (금)	
송남초 어린이 뉴스 만들기		5. 21 (수)	
전북	군산남고등학교	뮤지컬 이야기 글쓰기	5. 19 (월)
	간중초등학교	국악으로 하나되는 우리!	5. 20 (화)
	남원초등학교	임실 필봉농악 연주하기	5. 19 (월), 21(수)
		민요곡 "개구리처럼 폴짝" 노래 익히기	5. 20 (화)
		그림자 퍼포먼스 공연 만들기	5. 20 (화)
		리듬요소 이해하기	5. 20 (화)
		실과 바늘을 뚫으로 표현해볼까요?	5. 20 (화)
		마을 이야기 지도 만들기	5. 20 (화)
		국악관현악 실기	5. 20 (화), 22(목)
		소고춤 익히기	5. 23 (금)
		판소리 춘향가 익히기	5. 23 (금)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세상 만나기	5. 23 (금)
	당북초등학교	창작국악극 활동을 위한 민요, 전통무용, 국악관현악 실기	5. 21 (수)

전남	한천초등학교	정지동작으로 표현하기	5. 19 (월)	
	고서초등학교	인형극	5. 23 (금)	
		가면극	5. 23 (금)	
		빨간모자 뮤지컬	5. 23 (금)	
		마당극	5. 23 (금)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대신국악가족 한마당 잔치	5. 23 (금)	
	대전대신초등학교	1인 1악기 교육활동 실시	5. 19 (월), 23 (금)	
		1인 1악기 교육활동 실시	5. 19 (월), 23 (금)	
	동명초등학교	'오염된 대청호' 무용부분 학습하기	5. 22 (목)	
		영상 촬영 이해하기	5. 22 (목)	
		창작 뮤지컬 공연 준비를 위한 분장	5. 22 (목)	
		무대 위에서 잘 보이는 위치 잡기	5. 22 (목)	
		공연 연습	5. 22 (목)	
		음악 연습	5. 22 (목)	
	한천초등학교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	5. 21 (수)	
퓨전오케스트라 공연		5. 21 (수)		
돌멩이 그림 그리기		5. 21 (수)		
현산초등학교	지역 음악 향유하기	5. 21 (수)		
	신문을 활용한 읽기 교육	5. 21 (수)		
	4계절이 있는 병풍을 만들어 본다	5. 21 (수)		
	굿거리 장단 : 사선 만들기	5. 21 (수)		
경북	백원초등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5. 19 (월), 23 (금)	
	항공고등학교	1인 1악기 배우기	5. 23 (금)	
경남	남포초등학교	서양악기 실기	5. 02 (목), 23 (금)	
	거류초등학교	국악관현악 실기	5. 19 (월), 22 (목)	
	칠암초등학교	영화제작 수업	5. 19 (월)	
	고제초등학교	옷칠공예 실기	5. 19 (월)	
		목공예 실기(기초목공예)	5. 22 (목)	
		도자기 공예 실기	5. 23 (금)	
	대구월성초등학교	플루트 오케스트라 공연	5. 21 (수)	
	창호초등학교	창호 '꿈소리 앙상블' 실기	5. 21 (수)	
	성포중학교	관현악 및 국악 실기	5. 22 (목)	
	배영초등학교	부산민속예술축제 참여	5. 23 (금)	
	함월초등학교	전교생 1인 1악기 연주 및 오케스트라 운영	5월 행사기간 매주 월, 수, 토, 월~금	
	제주	북촌초등학교	제주신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5. 19 (월)
		영평초등학교	찾아가는 연주회	5. 16 (금)
나는 행복한 음악가			5. 23 (금)	
전교생 1인 1악기 문화예술교육			5. 20 (화), 22 (수), 23 (금)	
애월초등학교		그룹사운드 경연대회 참가 및 미술(회화,서예)사생대회 참가	5. 24 (토)	

1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체험형

일시 _ 2014년 5월 24일 (토)

장소 _ 전국 17개 시도

참가 _ 6,651명

주요내용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특별 프로그램, 기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센터, 단체, 기관의 주도 하에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역	기관명	주제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서울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연극투어>	30
	문화예술교육연구소 그 곳	은하철도의 밤을 날아서 (분야: 만화애니메이션 연극, 문학)	40
	달집	꾸물꾸물 꾸는 꿈 (분야: 통합예술)	60
	사단법인 희망예술기지	포니PONY청소년영화학교 : Play On Neverending Youth Film School (분야: 영화제작심리교육)	24
충북	충북문화재단	하늘로 날아가는 상상풍선 (분야: 통합)	30
	블레스 챔버 오케스트라	클래식의 반란 (분야: 음악)	25
	시장문화공동체 장소	전통시장에 문화있소 (분야: 분야공예, 미술)	40
	신미술관	미술관 재미있는 이야기 (분야: 관람 및 체험)	40
	천주시립예술단	함께 복치고, 노래하며, 춤추자'	15
	청주문화의집	<하트앤아트> (분야: 통합)	20
	퍼블릭에어	어린이 문화예술 탐험대 "별뿔대" (분야: 다원)	20
	에이치앤크래프트초이	누구나 쉽게 만드는 나전공예 (분야: 전통공예)	30
	종합문화예술회 '명석'	아이, 신나라! 문화놀이 (분야: 통합)	15
	충주열린학교	신나는 흙 놀이와 규방공예 (분야: 공예)	40
	(사)민족미술인협회충주지부	마당마당 바닥바닥 (분야: 미술/랜드아트)	20
	(사)한국국악협회 충주지부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20
	(재)중문화체육원고나광진흥재단	꿈의 뮤지컬 충주 (분야: 뮤지컬)	25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연극놀이 - 희망성공캠프 (분야: 노래와연극(노래극))	25
	보은청소년문화의집	낙화장 체험 (분야: 미술)	20
	극단 청예	연극으로 지출대는 꿈다락 지용단 (분야: 연극)	20

충북	옥천 국악협회	국악과 옥전에서 놀자! (분야: 국악, 미술)	20
	사단법인 동대국악진흥회	꿈꾸는 레인보우 문화학교 (분야: 국악 등)	20
	증평문화의집	다같이들자 동네한바퀴 (분야: 역사)	20
	극단 해보마, 음성문화예술회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브로드웨이 뮤지컬 - 영어는 노래를 타고~♪ (분야: 영어 뮤지컬)	40
	철박물관	Iroc Craft (분야: 미술)	45
충남	음악교육연구소 클랑	행복한 당당동 (분야: 음악)	45
	(사)한국미술협회 서천지부	서천 너른 들에서 만나다. (분야: 미술)	20
	CN아트브릿지	조선 최고의 발명왕 장영실을 표현하다. (분야: 뮤지컬)	40
	내포문화미디어센터	오카리나와 여행 (분야: 음악/미술)	31
	문화공감대	환상의 하모니 (분야: 음악)	30
	리각미술관	예술 씨앗 창의 놀이터 (분야: 미술)	30
	금강아트센터	우리는 하나로 어울리다 (분야: 공예)	60
	충남교육연구소	꿈다락 토요문화예술학교 가족공감페스티벌 (분야: 탐방 + 미술)	30
	한국자연미술가협회 - 아투	숲 속 음악회 (분야: 자연 음악 체험)	20
	문화예술연구소 '은'	I. 나무 남비받침 꾸미기 / II. 소통 프로그램 (분야: 미술)	20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충남지회	자연 속에 피어나는 예술 꿈나무~~ (분야: 통합민요,무용)	30
	도적골교육농장	흙도 꿈도 움틀꿈틀 살아있어요~	100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계룡시지부	꿈따라 춤여행 (분야: 무용)	20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라	문화예술교육, 미래 교육을 상상하다.	20
	김한중의사기념관	애들아~~ 짬뽕 짬뽕 다시 만들자	20
	연기향토박물관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놀이예술터 (분야: 전통문화)	40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세종시지회	흥겨운 소리로 행복 만끽 (분야: 민요)	15
전북	예술한탕	헬로, old & new (분야: 디자인 & 문학)	30
	(사)하예랑 역사문화연구원	역사따라 도란도란	40
	전북통합문화예술교육연구회	동동동 arting farming (분야: 생태통합문화예술교육)	30
전남	문화체험교육터 메아리	박물관 놀이터 프로젝트-지지굴 지지굴 박물관 이야기꽃 (분야: 강의(문화유산))	60
	(사) 문화예술진흥회	음악탐험 "뮤직페이퍼 MP3" (분야: 음악체험)	24
	(사) 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우·체·통 (우리! 체험하며 소통하자!) (분야: 문화예술)	52
	ESR작은도서관	직업 탐방 프로그램	40
	각화문화의집	도예가의 흔적을 따라 만지작(作) 토요학교 (분야: 미술)	30
	광주문화예술교육원	톡!톡!댄싱 톱! (분야: 무용)	
	광주영상문화네트워크	영화로 놀자! 영화 놀이터 (분야: 영화)	15
	교육거버넌스 협동조합	토요문화놀이터 (분야: 공예)	150
	(재)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윤미술관	토닥토닥미술관 (분야: 미술)	280
	디엠씨아트컴퍼니	Dream Up! 내 꿈을 잡(Job)아라! (분야: 음악극)	30
	무등현대미술관	자연과 함께 하는 에콜리주 (분야: 조형활동)	20
	문화경영연구소	멀티스토리 북 '작은 마을 이야기' (분야: 융합)	40

전남	문화행동 S#ARP	나도한다.소셜디자인season2 - DIY 소셜페스티벌 '이런짓' (분야 : 축제기획)	25	
	빛고을뮤지시니어직능클럽	두루미 꿈밭	30	
	성균관여성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	엄마랑 함께 타는 선비학당 타임머신	50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나는 영화산책자! (분야 : 미디어)	40	
	우제길미술관	봄빛의 왈츠 (분야 : 미술+음악)	15	
	은암미술관	토요아트팩토리 '대의동꼬마디렉터' (분야 : 미술)	40	
	의재문화재단	의재에서 놀Go, 먹Go, 꿈꾸Go (분야 : 미술, 설치, 창극)	100	
	작은도서관숲	문화야 안녕! 예술아 놀자!! (분야 : 복합형조형예술)	20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내 꿈을 찾아서 (분야 : 연극)	25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춤추는 몸의학교 (분야 : 무용-커뮤니티댄스)	15	
	동명동 커뮤니티센터	꼬마요리사의 맛있는 healing school (분야 : 통합장르)	50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끈풀린 운동화: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분야 : 통합장르- 연극)	50	
	핸드라극예협동조합	연재마을 색 물들이기 (분야 : 천연염색)	40	
	경북	NDS우현경주평생교육원	자연의 색과 향을 통한 힐링데이! (분야 : 염색공예)	15
		(사) 한국교육전문가 협회	웃음꽃 넘치는 행복한 우리가족 (분야 : 공예)	15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아이들의 예술창작 스튜디오 (분야 : 도자공예, 서양화)	20
아은예술교육원		할매·할배랑 떠나는 우리 문화여행 (분야 : 소통)	15	
김천문화의집		네모의 꿈 (분야 : 미술-디자인)	50	
달성문화센터		전통떡 만들기 체험을 통한 전통문양 바로알기 (분야 : 전통예술체험)	30	
경상북도립성주공공도서관		전통문화, 도서관으로 들어오다 (분야 : 놀이, 북아트)	80	
경북 영주시 소수예원		필레꽃 향기 작은 음악회 (분야 : 음악,공연)	15	
울주문화원		주거공간의 명품, 한옥의 재발견	15	
(사)전통문화진흥원		교촌마을 이야기보따리 (분야 : 창의)	60	
경남	정미숙 무용단	몸으로 소통하는 세대공감 『몸 소 세』	32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마음의 키가 자라나는 재활용 뮤지컬 인형극 (분야 : 공예/뮤지컬인형극)	40	
	수이제 연구공간	영화 치유 프로그램 (분야 : 통합(영화, 토론))	20	
	온누리오페라단	한지붕 아래 3세대 (분야 : 뮤지컬)	26	
	송교성	자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분야 : 인문학/디자인)	40	
	아트앤소울	나도 아티스트 I am Artist! (분야 : 미디어·미술)	30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재미난 금정 예술공장 (분야 : 음악)	60	
	오픈스페이스 배	빛 그림 그리기 (분야 : 미술)	40	
	문화사업단 '필인'	골목영화만들기 레디고! (분야 : 연극&영화)	20	
	가치협동조합	부산 Gachi 찾기 (분야 : 미술)	30	
	문화예술교육연구소	까망까망 통통 (분야 : 미술)	45	
	행복도시부산 환경문화 알리기 사업회	미술교육을 통해 우리들 자녀의 진로를 바르게 알리자! (분야 : 미술)	50	
	맨발동무도서관	말하는 물놀이 (분야 : 놀이)	30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두근두근 꿈담현대 (분야 : 통합)	25	
	사단법인 티 아이 에프	오페라와 뮤지컬 친구하기 (분야 : 음악)	120	

경남	부산문화가협회	꾸욱! 놀러 새긴 역사탐험Ⅳ-역사와 미술을 연계한 Book Art 제작 부제 : 강과 함께 사는 사람들 (분야 : 역사+미술)	20
	아트커뮤니티센터 - 라온	전통시장 'UCC 라온기자단' 1기 (분야 : 통합)	40
	SPNT art	미술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분야 : 미술)	75
	영도희망21	몸.짓.꼴.패(창작 뮤지컬 워크숍) (분야 : 뮤지컬)	20
	극단 해풍	부산근현대사와 함께 하는 어린이연극교실 (분야 : 일반, 연극)	80
	모이다 아트 협동조합	오물딱 조물딱 맛있는 이야기 속으로 청범~ (분야 : 요리&공예)	40
	어린이영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어린이방송국 CBN(Children Broadcasting & Network) (분야 : 미디어)	50
	대구문화예술창작공간	방천 콜라보레이션 우리동네 예체는 '예술로 통하는 약자지 걸 운동해~~~' (분야 : 통합 (미술, 체육, 무용, 음악, 인문))	20
	떼아트르 분도	'음악을 그리다' (분야 : 음악&미술)	60
	세계음악학회	세계악기 전시 (분야 : 음악)	75
	예술과 소통	우리는 아트 패밀리(예술이랑 친구하자) (분야 : 음악, 미술, 시, 영상)	90
	(사)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전통을 체험하다, 전통을 잇다, 전통을 만들다 (분야 : 문화체험)	60
	(사) 국악사랑 해마루	아해야, 우리소리로 놀자 (분야 : 국악 연주 감상 및 연주 연주 체험)	150
	달성문화센터	전통떡 만들기 체험을 통한 전통문양 바로알기 (분야 : 전통예술체험)	30
	놀이패 배꾸마당	친구와 함께 토요일 두드림Do Dream 네 끼를 펼쳐라! (분야 : 국악)	25
	사단법인 대안공간 마루	공공미술, 신나는 길 함께 걸어요!! (분야 : 미술)	40
	선유풍물연구소	나도 재할용아티스트! (분야 : 연극놀이)	25
	예술단 樂(락)	소리 여행 (분야 : 전통예술)	40
	창원문화원	즐기면서 배우는 전통문화 - 토요일 어린이박물관 (분야 : 역사, 문화, 예술)	30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발전연구원	창의 예술 감수성교육 "소리와 함께 놀자" (분야 : 음악 + 미술)	4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지부	단동심훈 전통놀이굿(차별표회) (분야 : 전통)	20
	거제조선해양문화관	색깔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분야 : 미술)	80
	거창문화원	다 함께 놀자, 동네한바퀴 (분야 : 연극)	30
	거창 우리문화연구회	해야해야 나오너라, 매구치며 놀자 (분야 : 전통예술)	30
	한얼문화예술교육연구회	전래놀이로 소통하는 법 깨치기 - 전래야 미술로 놀자 (분야 : 미술)	30
	고성예총	소가야의 문화 알아보기 (분야 : 문화, 미술)	15
	C.C.D.C Play One 협동조합	인형은 내 친구 (분야 : 인형극)	15
	김해문화원	무용으로 배우는 가아이야기 "가야의 꽃 마타리 꽃" (분야 : 무용)	20
	(사)김해미술문화연구회	내가 꾸미는 가야문화 (분야 : 통합미술)	20
	더 문 아트 컴퍼니	역사,뮤지컬을 만나다 (분야 : 뮤지컬)	15
	한국문화예술통	익히고~ 즐기~ 뽐내고~ (분야 : 라인댄스)	15
	극단메들리	우리들의 백중놀이 (분야 : 음악,무용)	20
	밀양청년작가회	2014 아트로 힐링하자 (분야 : 미술/연극)	50

경남	밀양향토사연구회	밀양문화예술역사여행-지역문화예술명사와의 만남 (분야:통합)	60
	(사)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	흙으로 빛은 고운 이야기 (분야: 도예)	20
	전문예술법인 극단현장	나도 재활동아티스트! (분야: 연극놀이)	36
	진주오광대보존회	행복한 탈마당 얼쑤! (분야: 전통)	25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아나버다 나눔 음악회 (분야: 음악)	30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미술로소통하는 가족미술놀이 (분야: 미술)	75
	사단법인 극단 미소	가족, 친구들이 나를 보여줄게 (분야: 연극)	15
	창원시김달진문학관	다문화(결혼이민자)가족 초청 "그리운 고국, 애타는 얼굴" 한글편지글쓰기 대회 (분야: 문학)	130
	대산미술관	우리가족 스토리북 '말할 수 있는 비밀 (분야: 미술)	60
	(유)풀뿌리문화공동체 예종	두드림(Do Dream) 어린이 음악대 - 소리 찾아 떠나는 소풍 (분야: 음악(악기연주-체험))	20
	창원아트센터	똑! 똑! 조선시대와 만나다. (분야: 통합 예술)	15
	창원예총	통통 미술놀이를 상상의 나라를 펴자! (분야: 미술)	40
	춤누리무용단	오리들이 탈춤추며 놀아보자 (분야: 무용)	20
	환경미디어센터	탈을 쓴 뉴스 (분야: 미디어)	20
	희망나라	우리가족은 예술로 통해요-가족스토리텔링 (분야: 미술)	30
	극단고도	썩다썩다! 토요 연극아지트 (분야: 연극)	40
	비영리단체 꿈지락갤러리	한지 Casting & 천년의 빛 (분야: 공예)	50
	고성공예협회	식물과 회화(조경예술) (분야: 식물 예술)	30
	대암신선초록정보화마을	꼭 보여주고싶은 우리문화 (분야: 미술)	40
	경북 영주시 소수예원	짚레꼳 향기 작은 음악회 (분야: 음악, 공연)	15
	통합문화예술교육 바로	우리가 만드는 에코마켓	20
	문화예술 틈	우리들만의 꿈 인형 프로젝트	30
	창작집단 드림	미션 임파서블	90
	창작집단 하늘그리기, 공업탐청소년문화의집	울산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라!	30
	울산시미디어센터	동구, Go발 뉴스 - 일산 Go발 !!	20
	문화예술센터 결	꿈에 마루 in 多樂	25
	북구청소년문화의집	패션을 좀 아는 '나'	75
	예술교육연구모임 담쟁이	예술가들의 아지트 공간, 그 속에서 벌어지는 별별이야기	25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나르샤"	번쩍이는 발상 놀이	60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심동심 (二心同心)	50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틀 꿈틀 아트슈타인/ (아우름 프로그램)	15
	울산사진미래포럼	일상만끽 감성프로젝트 '프레임 속 아이들의 꿈'	20
	사단법인 울산중구문화원	원도심 예술 놀이단	40
	극단 푸른가시	놀러 가자!! 극장으로!!	20
	춤따라 무용단	「창작 난타 몸부림」 친구들이 놀러와!	15
	울산미디어문화네트워크	강동, 골목에서 놀자! '강동의 보물을 찾아서'	15
	극단 무(無)	극단 무(無)와 함께하는 Fun Fun Fun 즐거운 예술여행! <신기한 그림자 나라>	15

제주	세이레아트센터	손장갑 인형 만들고 인형놀이해요 (분야: 연극)	15
	반짝반짝 지구상회	노래하는 바다, 연주하는 바다(가제) (분야: 공예, 음악)	10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감성을 리필하다! (분야: 연극, 공예, 음악, 목공예등)	15
	꿈꾸는 고물상	별씨들의 가든파티 (분야: 융합형)	15
	문화교육들살이	우리가 꾸미는 토요일 학교 축제!! (분야: 목공예)	30
총 인원			6,651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04

홍보

04

04_1 언론 홍보

04_2 주요 보도 성과

04. 홍보

04-1. 언론 홍보

개요

기간 : 2014년 4월 1일 ~ 6월 13일

홍보실적 : 총 162건

매체별 게재 현황

분류	구분	게재건수
일간지	심층 (취재 및 기획 기사)	7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	9
방송	뉴스 보도 (단신/취재/영상)	5
	교양 프로그램 외	4
온라인 외	스트레이트 및 취재, 기획 기사	137
총 계		162

※ 지면에 게재된 기사가 동일 매체의 웹사이트에 게재시 건수에 포함

※ 온라인은 별도의 지면 없이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를 기준으로 함

※ 동일한 내용이나 기사의 경우 타이틀이 다를 경우, 별도의 건으로 정리

시기별 게재 현황

분류	사전	행사기간 중	사후	총계
방송	1	7	1	9
심층취재	1	5	6	12
일반취재 및 온라인	37	82	22	141
합 계	39	94	29	162

주요내용

세월호 침몰 사고(2014.4.16)로 인한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홍보 기조 유지,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행사 주제와 연계하여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기획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성과와 과제

진흥원과 사업추진단, 홍보 대행사가 함께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홍보적으로 이슈화 할 수 있는 요소(방송화면 등) 발굴 및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EBS 스쿨리포터
2014. 5. 26



대전 KBS
2014. 5. 23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05 참고자료

05

05_1 연설 및 발표자료

- 01. 개막강연 I
- 02. 개막강연 II
- 03. 폐막식 비전발표

05_2 참가자 소감

05_3 홍보 제작물

05. 참고자료

05-1. 연설 및 발표자료

01. 개막강연 I

주제강연 :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 박웅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행사에서 한 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작곡도 하지 못하고 연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음악이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쉽죠? 'Music is magic.' 그런 면에서 지금 작곡을 하신 분들이나 연주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마술사 'magician'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마술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가 '하루하루' 라는 테마잖아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아마도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일상의 이중성'이란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은 일단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섭지 않은 팀장? 아니면 뭐 말 잘 듣는 고양이? 아니면 너무 많은 연봉? 먹기 싫은 술? 하기 쉬운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질 않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존재하기 힘든 것이 만만한 일상 같습니다. 일상은 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진 전시회를 할 때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사진이 뭐였냐 하면, 폐지를 수거하는 할아 버님께서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잔뜩 싣고 너무 지쳐서 리어카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잠깐 주무시는 사진이었요. 거기다가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의 이름, 그것은 일상이다.' 우리들의 일상은 그 할아버지의 일상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출근을 하려면 늘 바쁘구요, 지하철은 그렇게 쾌적하지 않구요, 그리고 사무실에 나가면 팀장이 늘 친절하지 않구요, 친구들이랑 갈등도 있구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가 있구요, 취업하고 나면 또 승진 스트레스 받아야 되구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나면 남편 관리를 해야 되구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문제가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죠. 한번만 딱 하고 말면 좋겠는데,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출근길이 그렇게 싫었는데 또 타야 되는 거죠. 그것을 365일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다른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랭보라는 프랑스 시인이 얘기했죠? '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 제 후배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이상형은 낯선 사람이다.' 아마도 맞는 말일 겁니다. 낯선 사람이 감정을 가장 먼저 끌어오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삶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냥 바라보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동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삶을 동경합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 안에서 동경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경이라는 단어 뜻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흔히 겪어보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우러르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간절히 생각함' 이게 동경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다른 삶을 동경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른 삶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바라볼 때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기 지금 '우러르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의 지하철에 시달리는 나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태리 시에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아니면 런던에 있는 누군가를 동경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50대면 20대의 어떤 삶을 동경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다른 대학을 동경하구요. 내가 지금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으면 딸이 있는 삶을 동경하고, 결혼을 못했으면 결혼을 한 삶을 동경합니다. 이 동경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질 않는거죠.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루한 현실, 현실은 비루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장관님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삶도 비루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비루한 일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욕망의 최대치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써 불행해집니다. 시에나에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런던에선 이럴 수가 있는데 저 대학만 갔으면 내가 이럴 수 있었는데 내가 젊기만 하다면 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돈만 있었으면 뭘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애써 불행해 집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경하는 그 생활, 그 일상에도 아픔이 있을 텐데, 우리는 애써 그들의 아픔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여행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설레이죠?, '설레입니다.'와 '내가 요번에 피렌체에 갔다가 시에나에 갔다가 산지미냐노로 가서 그 아름다운 지역을 보고 투스카나 지역을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서..' 라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일단 비행기 부킹해야 되구요, 그리고 짐 질질 끌고 가야 되구요, 낯선 공항에서 길을 잃어야 되구요, 그리고 호텔 찾아가면서 헤매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내가 꿈꿨던 그 순간을 즐길 겁니다. 하지만 그 30분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 그 시간들은요? 거기에 대해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행의 낭만이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죠?

이번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이태리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시에나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피렌체로 갔다가 시에나로 가서 산지미냐노로 갔다가 친퀘테레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왔죠. 차를 렌트해서 토스카나 지역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주 예쁘게들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와 정말 좋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이 없을까?,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 같은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란 감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알랭 드 보통 얘긴데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불완전한 정보로 사랑에 빠집니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멋진 모습, 어떤 아름다운 한 순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코를 고는지?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 사람이 회를 낼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같은 것들은 내 욕망으로 채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아, 이 사람은 나랑 이런 순간을 이렇게 맞을 거야'라고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그 사람의 밥 먹을 때 습관 같은, 잘못된 무엇이 나오면 회를 냅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 당신은 이런 사람이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채웠던 거죠.

일상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을 바라볼 때 이 비루한 일상, 힘들기 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일 수밖에 없는 일상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 내가 꿈꾸는 그 다른 삶들, 다른 도시, 다른 환경, 거긴 진짜 푸르고 아름답기만 할까요.

사십대에 불혹이 온다고 동양에서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불혹을 어떻게 해석 하나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것인데 내가 완벽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혹이 저한테 왔습니다. 50대에 왔습니다. 십년 뒤늦게 왔죠? 근데 그 불혹이 뭐냐 하면, 나의 답은 긍정이었습니다. 시에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답도 긍정합니다. 런던에 사는 그 답도 좋구요, 20대의 그 삶도 좋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삶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 삶에도 아픔이 있을 것이다, 나의 삶만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삶에 집중을 하자 더 흔들릴게 뭐가 있냐, 그게 저한테는 불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비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CNR을 꿈꾼다, 아니면 제가 2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다른 조건, 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 다른 곳을 갈망하고 동경을 한다고 해서 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타임머신을 타실 수 있으십니까? 이태리에 다시 태어나실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나를 홍길동처럼 분리, 분해해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20대가 다시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지금 서있는 이 공간적 지점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적 순간에 존재한다. 나는 이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2014년 5월 19일 5시40분 현재 서울역에 서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저의 유일한 행복의 공간이어야 하구요, 그리고 이 공간이 가장 좋은 저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선택과 이 선택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다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해도, 바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겠죠? 제가 일상의 이중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의 이중성이란 말씀은 첫 번째는 비루하다는 말씀이구요, 두 번째는요, 그 비루한 현실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유일한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있고요, 또 갈등이 생길 것이고, 지하철연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라'라고 앙드레 지이드가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선택한 답이 마치 유일한 답인 듯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이면, "선배님,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되나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학을 선택을 해도 정답과 오답이 있을 것이고, 유학을 포기하고 직장 선택을 해도 정답과 오답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는 정답만 있고 어디에는 오답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죠. 아주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예를 들어, 짜장면과 짬뽕의 고민이죠, 49대 51입니다. 그러니 미련이 남습니다. 짜장면을 선택해 먹다 보면 '아이, 저기 짬뽕 맛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달아야 됩니다. 짜장면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최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다. 나는 짜장면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 유학을 선택했으면요, 분명 유학가면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괜히 왔어. 아 서울에서 내가 직장을 다녔어야 했는데'라고 해봐야 타임머신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학을 온 게 제일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일상에 대해서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상전도사'라는 별명입니다. 2009년에 제가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은 사실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책이었지만, 그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일상이나 일과 같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일상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강의 부탁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상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 별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별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책에 제가 서문을 썼는데요, 그 서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테마에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책에 서문은, 혹시 책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오늘 아침은 나의 보물입니다.'입니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들어가죠. '5시 40분.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울려준 나의 알람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준 나의 몸은 나의 보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새벽 수영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힘듭니다. 그래도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내 몸이 일어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을 수영장까지 데려다 준 평범한 나의 차와 그 차의 창으로 잠깐 느낀 신선한 아침 공기는 나의 보물입니다. 뛰어 들 때 마다, 저절로 "아, 좋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수영장의 찬 물과 그 물을 헤칠 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물살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마주한 따뜻한 두부 한 모는 나의 보물입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들은 파파로티의 목소리는 나의 보물이고, 그 목소리의 선율을 만들었던 베르디라는 사람은 나의 보물입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 비치는 햇살, 장마로 약간 불안한 중랑천의 물결, 삭막한 시멘트 벽면을 부드럽게 덮어가는 담쟁이 덩굴의 부지런함, 그 담쟁이 덩굴에서 볼 수 있는 총 천연색 연두색의 향연, 천변에 아무렇게 피어있는 노란 등꽃, 그 등꽃을 살짝 살짝 흔드는 바람, 그 바람을 헤치는 자전거의 풍경, 그 위를 나는 이름 모를 새의 날개 짓, 물새들이 가끔 보여주는 이륙과 착륙의 경이로운 몸짓, 거기에 간지러운 듯 반응하는 개천물의 흰 포막, 출근길에 만나는 이 모든 풍경은 나의 보물이고, 천천히 달리며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 교통정체는 나의 보물입니다.'

동부간선 도로를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월요일 같은 날 차는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입니다.

'사무실에서 내가 직접 내려 마시는 녹차 한잔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 녹차와 함께 업무모드로 바뀌는 나의 머리와 오늘 처리해야 할 11가지 일들은 모두 나의 보물입니다. 늘 그 자리에 별 문제없이 내 명령을 기다리는 노트북과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보물 1448호 액자의 사진의 단아함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은 나의 보물입니다. 오늘 아침은 나의 보물입니다. 나의 일상은 나의 보물입니다.'라고 서문을 썼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정체 엄청나구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쌓여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풍경들 중에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나쁘게 볼 것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꿀 것은 저의 태도라고 봅니다. 제가 흥길동이 아닌 이상, 타임머신을 탈 수 없는 이상, 제가 바꿀 것은 저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과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상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볼만한 것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리고 봤더니 다른 곳에 있는 일상들도 아름답기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바로 잔디이론입니다. 잔디밭을 나가보면, 내 밑의 잔디만 등성등성해 보이구요, 저쪽 잔디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쪽 땅에 가서 보면요, 거기도 등성등성합니다. 제가 보기엔 시에나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는 저의 모습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음악회에서 악기도 없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02. 개막강연 II

예술적 경험을 통한 일상의 매혹적 변화 / 에릭 부스(Eric Booth)

2014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기조강연을 위한 핵심단어들을 저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동사들입니다 :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발견하다, 다시 밝히다, 다시 만들어 내다, 다시 시작하다.” 영어에서 “re”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보통 “다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간 행사의 첫 단추인 이 강연에서는, 이전에 있던 것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술교육에서 경험한 무언가를 다시 경험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강력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경험들은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의 힘에 삶을 맡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 결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어린시절의 경험을 기념하고 전 세계 청년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줄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바입니다.

<제31조 여가와 놀이>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아동이 예술활동에 대해 타고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아동은 자연적으로 예술적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 놀이를 합니다. 예술교육은 그러한 자연적 경향과 능력을 심화시켜 삶 전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교육이 학습 성과 향상, 고용기회 및 성과 증진, 보다 적극적인 참여시민 양성과 같은 실용적인 결과 또한 낳는다는 사실은 점차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시절을 통해 경험했듯이 예술적 경험의 꾸준한 지속을 장려하는 예술교육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장 단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충전용 배터리와도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에 힘을 쓰고 나면 종종 이 성장기 경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한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여가와 놀이'라는 온전한 태생적 권리가, 정치와 경제의 강한 압력 때문에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내 예술교육 활동가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술경험의 필수성에 대한 무관심과 업신여김에 지쳐있습니다. 나는 여기 모인 모두가 제31조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기에,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충전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될 때, 각자의 나라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지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글로벌 예술교육 네트워크에 힘을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요? 어린시절에, 그리고 성인으로서 경험한 이 핵심적 경험이 무엇이고 얼마나 강력하길래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걸음이 평생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핵심적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 중 일부는 단소를 불면서 또 일부는 힙합의 운율을 맞추면서 발견했으나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핵심적 예술경험은 무엇일까요?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인 David Bohm은 "상반되어 보이는 것을 볼 때마다 양쪽을 아우르는 더 큰 진리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의 북을 엄격한 리듬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과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잘 추는 것의 연관성의 기저에 있는 더 큰 진리는 무엇일까요? 혹은 심지어 햄릿 공연과 친구와의 훌륭한 대화를 잇는 더 큰 진리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술을 명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은 물론 갤러리 벽에 걸린 그림 또는 콘서트홀의 베토벤 심포니입니다. 예술을 명사로 정의할 때, 예술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됩니다. 청년들을 그런 깊고 강력한 예술적 전통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예술적 전통을 계속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은 예술교육 목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술교육의 능력과 잠재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나머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예술의 범위와 예술교육의 잠재력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베토벤의 곡을 더 잘 연주하거나 대작을 그리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술의 더 위대한 진리, 동사로서의 예술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발리섬의 춤과 리버풀 거리의 벽화는 언뜻 전혀 별개인 듯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예술의 동사들이 놓여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술의 동사들을 일깨워줄 간단한 활동을 함께 해봅시다. 자, 이 벽을 봐주세요. 이 방의 이 부분이 공연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표를 사서 연극이 시작될길 기다리며 앉아있습니다. 이 벽과 그 앞의 모든 것은 무대디자이너가 꼼꼼히 준비한 무대세트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연극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지고 배치된 것입니다. 자, 이 무대세트에서 연극의 종류에 대해 힌트가 될 만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이 연극에 대해 말해주는 어떤 실제적인 물건이 보입니까? 이 벽을 방금 몇 분간 바라봤던 경험과 그 이전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벽과 물건들이 여기 내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술인 “만약”으로 초대하고, 나와 함께 가능성을 상상해볼 것을 요청한 순간, 여러분의 보는 경험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보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뒤로 기대어, 과학자들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할 때” 사용하는 인지능력의 5%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개 앉아서 나중에 해야 할 일, 이 강연의 마음에 드는 점 또는 안 드는 점, 내 신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집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술적으로 참여할 때 집중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제시된 것을 보기 시작하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기보다, 그룹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함께 경험한 ‘심미적 집중(aesthetic attention)’이라는 예술의 동사, 즉 예술의 작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평범한 것들을 흥미와 잠재력이 넘치는 물건들로, 재미와 집단이익과 존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술교육은 예술의 동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재주 있는 청년들이 예술작품에 창조적으로 집중할 뿐 아니라, 과학과 수학과 그들 세계 전체에 창조적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철학자 John Dewey는 “심미적”이란 단어의 정의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간 연구 끝에 그는 그 단어를 정의할 수 없음을 시인했지만, 그 단어의 반의어는 “무감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사로서의 예술은 우리 주변의 현실에 우리를 눈 뜨게 하며 평범 속 가치를 발견하고 비범의 완전한 경이를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TV 생방송 인터뷰에서 예술과 오락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어려워 TV에서는 엉망인 답을 했지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락은 예술의 적이 아니며, 아니기를 바란다.’ 예술적 경험은 절제를 요하는 한편 재미있고 매력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락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예술과 구별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 웃음, 울음, 비디오나 영화나 노래에 흥분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바탕에서 오락은 말합니다. “맞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야.” 숨쉬 있게 내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을 확인하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반면, 예술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밖에서 일어납니다. 예술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현재 모습 혹은 세상의 모습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

며,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경험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 의 기적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평범을 비범으로 변화시키며, 음악, 춤, 시각예술, 드라마, 역사, 화학, 수학,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 예술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에서 그들이 담아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동이 종일 진흙으로 만들기를 해도 예술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 안의 예술가를 일깨우는 것은 명사, 진흙이 아닙니다. 아동은 교사의 가르침을 고분고분 따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말처럼 생긴 것을 만들 수 있지만, 배우는 것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동은 그 진흙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진흙 안에 자신을 쏟아 부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예술의 동사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담아내는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흙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서 진흙 속에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술의 의미입니다. 예술강사의 역할은, 진흙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친구들이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탐색하여 그 안의 생명을 발견하도록 아이들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교육자들은 명사로서의 예술만큼이나 동사로서의 예술을 가르쳐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훌륭한 예술교육자들은 동사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위대한 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저는 '80%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하게 들리도록 "법칙"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구체적 퍼센트는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의 80%는 우리 자신입니다. 커리큘럼, 학습계획, 정보는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 영향력에 비교했을 때 20%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실에서 교사를 통해 예술의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듣고, 느끼고, 만들고, 발견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연결 짓는 방식으로부터 예술적 사고의 의미를 배웁니다. 80%의 법칙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위대한 교사들을 떠올려보세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선택하게 만든 것은 강의계획 또는 수업자료가 아니라 교실에 함께 있었던 교사의 자질이었을 것입니다. 80%의 법칙은 예술의 동사들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식 하든 못하든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가 보살피는 모든 아동에게 영감을 주는 우리 안의 예술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예술의 동사들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매우 어려운 진흙이 놓여있습니다. 정부 정책, 재정적 제약, 학교 수업시간 배정에서 강력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들, 우리의 제한적인

힘 등.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이와 어른으로 이미 경험한 예술교육을 통해 마음을 쓰고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행위가 갖고 있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모습 또는 가능한 세계의 모습에 대한 감각의 확장”이라는 예술에 대한 저의 정의는 학습에 대한 정의와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 학습의 순간에, 여러분은 자신과 집중하고 있는 무언가 사이에 연결을 짓게 되며, 그 연결은 다른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술 및 학습 경험은 동일한 동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정말 중복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연결을 만든다”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창조활동입니다. 생물학, 작문, 수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관심 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즉 새로운 연결 고리 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구절을 만드는 것과 같은 동사들을 공유합니다. 청년들이 예술적 창조자가 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청년들이 훌륭한 학습자가 되도록 힘을 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동사와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미국에서 저는 예술강사(teaching artist: 교육하는 예술가)로 불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여 교육가의 역량과 감성을 배우는 예술가를 묘사합니다. 예술강사는 다양한 목적을 두고 예술 안에, 예술을 통해, 예술에 대한 학습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미국에는 약 3만 명의 전문 예술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예술기관, 양로원, 감옥, 병원 등과 손잡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예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예술교육은 대부분의 유네스코 회원국과 견주어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지 않지만 예술강사, 즉 교육하는 예술가의 개념을 오늘날 전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예술가의 기술을 교육자의 역량으로 개발시킴으로써 ‘예술강사’는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이 점증하는 현상에 관하여 2년마다 국제예술강사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2년 오슬로에서 제1회 예술강사컨퍼런스가 열렸고, 제2회는 올해 7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표단을 보내고 싶다면 신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컨퍼런스의 의장이며 7월 1일부터 3일 간 열리는 세계컨퍼런스의 후원자인, 퀸즈랜드 공과대학교의 Brad Haseman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예술과 교육의 두 세계에 걸쳐 숙련된 직업인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양쪽 세계 전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양쪽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는 더 큰 진리를 보기가 더 쉬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제가 2006년 리스본에서 열렸던 제1차 유네스코 예술교육컨퍼런스에서 폐회강연을 부탁 받았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술강사를 통해 예술과 교육이 함께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예술강사로서 살아온 날들을 통해, 저는 우리가 예술교육을 통해 발전시키려는 가장 중요한 예술의 동사가 하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The Qualities of Quality”라는 제목의 2009년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연구 보고서는 무엇이 최고급 예술교육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훌륭한 교수법도, 자료도, 분위기도 아닌 바로 학습자의 동기입니다. 호기심이 넘치며 열심인, 학습에 굶주린,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학습자는 평범한 가르침을 훌륭한 학습으로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부족한 조건 또는 부적절한 자료를 극복하고 훌륭한 학습을 낳습니다. 하버드 연구는 바로 이 예술교육의 동사-내재적 동기와 자신의 개인적 이유로 원가를 만들려는 욕구가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의 경험도 그것을 확인해줍니다. 저는 굶주린 학습자들이 평범한 가르침과 미흡한 품질의 자료를 갖고 강력한 학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동기라는 이 동사는 학습의 많은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영역은 예술 분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아동 학교교육의 중심에 속하는 이유인데, 이 동사가 모든 학습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질적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채울 만큼 정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적 동기에 따라 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와, 내면적 동기에 따라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할 때의 차이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느끼셨듯이,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느낌의 차이가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의 질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면적 동기는 우리가 삶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며, 예술은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능력을 가장 잘 개발시켜줍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베네수엘라의 방과후 음악학습프로그램인 El Sistema의 국제적 성장에 많은 시간을 헌신해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창립자인 José Antonio Abreu 또는 그곳의 가장 유명한 졸업생인 지휘자 Gustavo Dudamel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El Sistema는 방과후 집중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음악가로 키우는 것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민들로 자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세계적 성장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집중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미국 내 100여 개 도시에서, 56개국 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KACES가 지휘하는 한국의 열정적 프로그램인 “꿈의 오케스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El Sistem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아동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심어줌으로써 가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에 대한 동기는 너무도 강하게 자리나서 성장기 여가시간을 뮤지컬 리허설 및 연습에 쓰도록 선택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피하고, 예술적 탁월함이 수반하는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는 많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휴일의 식사, 손주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성가대의 찬양, 베토벤의 5번 교향곡 그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이 욕구를 표현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열망입니다. 열망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향한 굶주림을 뜻합니다. 열망은 아동으로 하여금 바이올린을 배우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악기를 통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영감을 주는 것이며, 열망을 가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미를 창조하여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한다면, 그들의 커뮤니티를 향상시킬 만큼 충분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망은 친구들과 단지 날씨가 가습에 대해 수다를 떨기보다 깊은 발견의 대화를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휴일에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배우자와 춤을 더 잘 추게 하며, 우리가 요리하는 저녁식사에 딱 어울리는 양념을 추가하게 만드는 것이 열망입니다. 예술교육 지도자로서, 우리는 열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열망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수업과 그것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문화에 맞서서 청년들 안의 열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술강사는 보람 있는 활동을 향한 이 자연적 굶주림을 인도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느낌, 예술의 동사들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을 알게 하고 평생의 열망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 서울에서 다시 새롭게 하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기쁨과, 다른 사람들과 만드는 것을 공유하는 용기와 기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개의 인용구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의 책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에서 따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엇에 노출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우리자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대상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그 대상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열망에 모양을 준다. 예술은 열망을 담을 최고의 그릇이다. 그것은 너무도 풍부하고, 너무도 인간적이며, 많은 수준에서 정말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예술은 진지한 외양과 진지한 내면의 열망을 준다. 만약 이러한 열망이 예술보다 덜 풍부한 대상에 노출되면, 그 열망들은 잠에 빠지거나 죽거나 결국에는 매일 신문을 가득 채우는 해로운 탐구 증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인용구는,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 플라톤의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필수적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정부나 법이나 군대나 경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 한 가지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것에서 기쁨을 찾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술에서 과학, 일상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매개물을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려는 열망의 기쁨, 그리고 자신의 창작물이 지닌 가치와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공감할 것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용기보다 더 옳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 한 단어로 마치려고 합니다. 공연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단어, “브라보”입니다. “브라보”라는 단어가 영미권 공연장에서 처음 불렸을 때, 그것은 오늘날처럼 훌륭한 기교를 인정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오페라 테너가 아리아를 잘 부르면 누군가가 “브라보”를 외쳐서 완벽함을 인정해줍니다. 원래 브라보는 위대한 용기를 인정할 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용감한(brave)”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요. 라이브 공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누군가를 보았다면 여러분은 그 공연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끼는 아동들에게 더 풍성한 예술경험을 전하고자, 성과의 압박 속에도 여러분이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 최선, 위험 감수, 새로운 시도를 높이 인정하며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용기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이 강연을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단어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보!”

02. 개막강연 II

— 예술적 경험을 통한 일상의 매혹적 변화 / 에릭 부스(Eric Booth)

April 16, 2014

Eric Booth, UNESCO Keynote in Seoul

[Begin with thanks, to KACES, to delegates—and to the arts education teachers in our lives who sparked a passion that has lasted so much of our lives to bring us together today.]

Our conference organizers proposed the following key words to me for the beginning of our conference. They are all verbs: “renew, rediscover, re-illuminate, reproduce, restart.” Words that start with “re” in English usually imply “again”; so this speech, which is the first gesture of our conference, is about re-activating something that was there before.

What is it that we seek to renew as we begin the opportunity of this conference? I propose that we come together to experience again something that we experienced in arts education when we were children. We are all here because of childhood experiences that enabled us to have powerful experiences when we became adults. Those experiences, when young and older, inspired us to give our lives to the power of that experience. And that commitment from a childhood experience brings us together from around the world, in one of the world’s greatest cities, to celebrate that childhood experience, and strengthen our power to provide that experience for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as provid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This Article recognizes that every child has a birthright to artistic experiences, of the

kinds that changed our lives. Children naturally have artistic spirits and naturally play artistically; art education seeks to deepen those natural inclinations and skills, so that they can make the whole of their lives more beautiful. Research is increasingly proving that good arts education also produces practical results, such as better academic achievement, enriche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accomplishments, more civically engaged citizens. Arts education that fosters a consistent flow of artistic experiences changes the directions of peoples lives, in the short and long term, as we know better than anyone from our own lives.

We gather here to renew our commitment to this often overlooked and often forgotten formative experience because we are like rechargeable batteries that run down as we empower others and light up the programs that change children's lives. The powerful pressures of politics and economies can push the full birthright of Article 31 far to the side of government priorities. This is certainly true in my country, where U.S. policy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My arts education colleagues in the U.S. get worn down from fighting so hard against indifference and disrespect for the life-saving essentialness of arts experience. I am sure most who are here from other countries also need recharging from your relentless efforts to fulfill the promise of Article 31.

We also come to be recharged together so we can strengthen our international bonds, learn from and find new ways to support one another—to empower this emerging global network of arts education, in the awareness that we are not alone, and that we are stronger at home if we are more connected globally.

I have used the word "experience" almost 20 times already. What am I referring to? What is this core experience we had as children, and again as adults, that is so powerful we travel thousands of miles to be together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who speak different languages, to reactivate in ourselves? What is the core experience we work so hard to make sure the children in our care have with enough consistency so that they can internalize them for life. What is the core arts experience that we all have shared, even though some of us discovered it playing the bamboo flute and others in hiphop poetry? I follow the words of the great 20th century physicist David Bohm who said, "Any time you see seeming opposites, look for the greater truth that contains them both." What is the greater truth underneath the connection between rigorous repetition

of ancient drumming patterns on the tabla and dancing well in a night club? Or even, what is the greater truth of connection between a performance as Hamlet and a great conversation with a friend?

We tend to think of art according to its nouns—art IS the paintings on a gallery wall, or art is the Beethoven symphony in the concert hall. When we define art by its nouns, art education becomes the preparation for young people to be able to make and appreciate those art works. There is certainly nothing wrong with preparing young people to join those deep and powerful artistic traditions—keeping them alive is part of our goal in arts education. But that is only part of the power and potential of arts education, and to forget the rest of our responsibility i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scope of art and the potential of arts education. You and I did not come to Seoul to improve our performance of Beethoven, or to paint a masterpiece this week. Maybe you did come here to improve your dancing at night clubs! We came here because of the greater truth of art. We came here because of the verbs of art. Underneath the seeming separateness of a Balinese dance and a Liverpool street mural lie the same verbs of art.

Let's do a little activity together to remind ourselves about the verbs of art. Please look at this wall here. Imagine this part of our room is a stage in a theatre. You have paid for your ticket, and you are sitting waiting for the play to begin. This wall, and everything in front of it, is the stage set which has been meticulously prepared by the scenic designer. You know how they are—every single thing you see up here has been carefully created and placed to be exactly like this to create the world of the play. So, looking at this stage setting, what do you see that gives you hints about the kind of play it will be? What actual things do you see here that are eloquent about the play? Please raise your hand and share some ideas. [I repeat their ideas for about two minutes.] Let me pause here to point something out. Notice the experience of looking at this wall in the last few minutes compared to the twenty minutes before that. The same wall and objects have been here all the time, but the moment I gave you the world's smallest arts invitation—"what if"—and asked you to imagine possibilities with me, the experience of your looking changed. You began to see things and wonder about their meaning. Before you were leaning back, using the 5% of our cognitive capacity that brain scientists tell us we use when we "pay attention" in normal ways. Normally, we sit and think a jumble of things—about what you are going to do later, what you like or don't like about my speaking,

about my sneakers—that is normal paying attention. But the verbs of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attention change completely when you engage artistically. You began to see what was present, you began to create ideas and ask yourself interesting questions. And instead of being isolated, we began to work as a group—we listened to one another, appreciated the good ideas others had which expanded our own understanding. The verbs of art, in this case aesthetic attention, change everything. In this case they changed these ordinary into objects full of interest and potential, into fun, and group interest and respect. cArt education trains the verbs of art and don't we all want to have young people with the skills to pay attention creatively—to artworks, but also to science and math, and to the whole of their worlds. John Dewey, my favorite American philosopher was once asked if he could define the word "aesthetic." After some study he admitted he could not define the word, but he knew that its opposite was "anaesthetic." The verbs of art wake us up to the reality of what surrounds us and helps us discover the value in the ordinary and experience the full wonder of the extraordinary.

When I was being interviewed on live television once, I was asked to explain simply the difference between art and entertainment. I made a mess of the answer on TV because it is a difficult question. But here's what I came up with afterwards. Entertainment is not the enemy of art—let's hope not—artistic experience, while requiring discipline, needs to be fun and fascinating! What distinguishes entertainment is that it happens within what we already know. Whatever our feelings—laughing, crying, getting excited by the video game or movie or song—underneath, entertainment says, "Yes, the world is the way you think it is." And that feels great to have skillfully presented beautiful things confirm our sense of the way the world is. Art, on the other hand, happens outside of what we already know. In the experience of art, we expand our sense of the way the world is or might be; we expand our sense of the possible. That is the arts experience—the miracle of human imagination and creation that changes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we live in, that transforms the ordinary into the extraordinary—that envisions and makes new worlds, in music, dance, visual arts, drama, and also in history, chemistry, mathematics, and also in everyday life.

Quite simply art can be defined as two things: making things we can care about, and entering the creations of others to discover the new worlds they contain. A child can spend a whole day working with clay and not have an arts experience—it isn't the noun, the clay, that awakens the artist in her. She can compliantly follow the teacher'

s instructions and have fun, make something that looks like a horse, but learn little. She has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that clay, she has to be able to pour herself into that clay and make something that holds who she is, she needs to use the verbs of art that bring parts of herself into form. Those verbs that turn doing what you are told to do with clay, into shaping a new world of your own making in clay, are what we mean by art. It is the job of arts educators to activate and guide those capacities in her, so that she can make something she cares about in clay, and can explore the things her colleagues and masters of the art form have made to discover the aliveness they contain. Good arts educators know they teach the verbs of art as much as the nouns; great arts educators make the verbs the top priority.

Let me mention the foremost tool of great arts education. I call it the Law of 80%. I use the word “law” to make it sound important, and the specific percentage is a made up number. But it captures a strong truth. Eighty percent of what we teach is who we are. Yes, our curriculum, and lesson plans, and information are important, an important 20% of our impact. But students derive the deep lessons of art from drinking in the teacher in the room. They learn what it means to think artistically from the way we think, listen, feel, invent, discover things with them, make connections in front of their eyes. If you doubt the Law of 80%, think of the great teachers in your own life; it was not the syllabus or handouts that made you choose to live your life a different way. It was the quality of the person in the room with you. The Law of 80% requires that the verbs of art be alive in us all the time, because we are teaching all the time whether we know it or not. And we come together at conferences like this to revitalize the artist in us who inspires all the staff members we work with, who inspire everyone they work with, who inspire every child in our care.

Those verbs of art bring us to Seoul. We have our hands on very difficult clay—government policies, financial limitations, powerful competing priorities for time in the school day, our own limited strength. But we know the power of making things we care about—we learned it in our own arts education as a child an adult, what making things they care about does for the lives of the children whose spirits we are given the care of.

I will point out that my definition of art—to expand your sense of the way the world is or can be—is much the same definition as learning. In the moment of real learning,

you make a connection between yourself and something you are focusing on, a connection that no one else has ever made in exactly the same way. Artistic and learning experiences are made with the same verbs. The term “arts education” is really a redundant phrase. We make new connections, notice the phrase “making a connection”—it the world’s smallest creative act. Making things we care about—from new connections to whole new worlds—in biology or writing or math—taps the same verbs as making a musical phrase that captures what you feel. Empowering the artistic creator in young people develops exactly the same verbs, skills, as empowering the good learner in young people.

In the U.S., I am called a teaching artist. Other countries use different terms to describe an artist who learns the complementary skills of and sensibilities of an educator; and teaching artists engage people in learning experiences in, through, and about the arts, for a variety of purposes. There are some thirty thousand professional teaching artists in the U.S., and they partner with schools, in after school programs, with arts organizations, homes for older people, prisons, hospitals and more, to advance arts education across all ages. The U.S. does not have a lot to brag about in terms of our national arts education compared to most UNESCO countries, but teaching artistry is something we now share around the world. Teaching artistry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with many countries developing the skills of their artists as educators. Indeed, every two years there is now an International Teaching Artist Conference about this growing phenomenon. The First International Teaching Artist Conference was in Oslo in 2012, and the second will happen in Brisbane Australia this July—it is not too late for you to sign up or to send a delegate. Indeed, we have the Chairman of the conference here with us today, Brad Haseman from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sponsor of the world conference this July 1-3.

Teaching artists straddle the two worlds of arts and education, as skilled practitioners in both. Because we live in both worlds, it may be easier for us to see the greater truth that brings both worlds to life. That may be why I was asked to give the closing keynote speech at UNESCO’s first worldwide arts education conference in Lisbon in 2006—to have a teaching artist bring the worlds of art and education together.

In my lifetime as a teaching artist, I have come to realize there is one verb of art that we develop in arts education that is the most important. A 2009 research study from Harvard Project Zero, called “The Qualities of Quality,” explored the question of what makes for high quality arts education. One of the report’s findings is that one thing above all other elements determines quality in arts education. What do you think it might be? This on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he excellence of the teaching, nor the materials, nor the atmosphere. The one thing that determines quality more than any other is ... the motivation of the learner. The intrinsically motivated learner who is curious, eager, hungry for learning turns mediocre teaching into great learning. Research shows that intrinsic motivation overcomes poor conditions or inadequate materials to produce great learning. Harvard research tells us that it is this verb of arts education—intrinsic motivation, the drive to make something for your own personal reasons—that makes the greatest impact on learning. That is what my experience tells me too. Many times I have seen hungry learners turn mediocre teaching and poor quality supplies into powerful learning. This verb of motivation can be developed in many areas of study, but perhaps most powerfully in the arts—this is the very reason the arts belong in the center of a child’s schooling, because this verb animates all learning. It can become so strong it fills our lives with richness, no matter what our material circumstances. You know the difference in taking on a project you have to do, which is called extrinsic motivation, and a project you hunger to do, intrinsic motivation. As you know in your own life, the difference in those two feelings, having to do something and wanting to do something, determines the quality of your day. The quality of your life. Intrinsic motivation enables us to turn many of the “have to dos” in life into “want to dos”—and the arts develop that capacity better than anything else.

In recent years, I have dedicated much of my time to the international growth of El Sistema, the afterschool music learning program from Venezuela. Perhaps you have heard of its founder José Antonio Abreu or its most famous graduate, the conductor Gustavo Dudamel. It is an intensive after school orchestral program with the goal of developing the children as joyful people and contributing citizens as much as developing them as musicians. Its worldwide growth is historically unprecedented. This intensive orchestra program has spread to over 100 cities in the U.S., to 56 countries, over a million children, with a vigorous program in South Korea called The Orchestra of Dreams, directed by KACES, that is among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El Sistema succeeds

in bringing children in economically struggling communities out of poverty by fostering such an insatiable hunger to create beautiful music with their friends. Their motivation for beauty grows so strong that they choose spend most of their free time growing up in musical rehearsal and practice, and so avoid the dangers of communities of poverty, and develop the many skills that come with artistic excellence.

There are many words for this human drive to make things you care about, whether those things be a holiday meal, a story that delights your grandchildren, a song of faith in the choir, or Beethoven's fifth symphony. The word I use for this drive is yearning. Yearning is that hunger for more of that which we most care about. Yearning is what inspires the child to persist through the difficulties of learning the violin to create beauty on the instrument, and to expand her power by making beauty with her yearning friends, who together, if they work hard, can make enough beauty to make their community better. Yearning is what inspires us to create deep conversations of discovery with our friends rather than just to chat about the weather or gossip. It is yearning that makes our homes beautiful at holidays, makes us dance better with our spouses, adds just the right spice to the dinner we are cooking. And as arts education leaders, we are in the yearning business. Our job is to awaken the yearning in young people amid schooling that does not support it and cultures that ignore it or are hostile to it. Arts educators guide this natural hunger into rewarding activities so that children get the feel of making things they care about, the satisfactions and pleasures of the verbs of art, and become lifelong yearners. This is what we renew here in Seoul, our own joy in making things happen for children who we care about, and our courage and skill in sharing what we make with others.

I would like to end with two quotations. One is from my book *The Everyday Work of Art*—and I apologize for quoting myself, but unless I read it, I mess it up:

“People are shaped by what they extend themselves into. We must be very careful with the objects we present to ourselves and to our children because we are changed by them. Art lends shape to yearning. Art is the best container for yearning because it is so rich, so human, so satisfying on so many levels. Art gives serious outer shape to serious inner yearning. And if these yearnings are informed by less rich objects, they go to sleep, will die, or will eventually express themselves in the harmful symptoms of search that fill

the pages of the daily newspaper.”

In closing, I would like to quote Plato, who wrote that there is one essential thing a society must accomplish if it is going to succeed. One thing above all else; and that one thing doesn't have to do with governments or laws or military or economies. The one thing a society must accomplish in order to thrive is to teach its young people to find pleasure in the right things. There is no righter right thing than the pleasures of yearning to make things you care about, in every possible medium, from artistic to scientific to everyday life; and the courage to share those creations with others in the deep belief they have value and others want to receive what you have to give.

Let me end with a single word. It is a word performing artists love: “bravo.” When the word “bravo” was first called out in the English-speaking theater, it was not yelled in recognition of great virtuosity as it is today. Nowadays the opera tenor sings an aria well, and someone yells “bravo” to acknowledge the perfection. Originally bravo was yelled in recognition of great courage. As in the word “brave.” When you saw someone take a chance, under the pressure of live performance, you yelled bravo even if the performance wasn't perfect. I want to close by recognizing your everyday acts of courage, pushing hard, taking risks, trying new things, under the pressure of performance, in order to bring richer arts experiences to the children in your care. We come together to increase our determination and skill, but recognizing the courage of what you already do, the only appropriate word of closing is “bravo.”

03. 폐막식 비전발표

— 건강한 일상의 힘을 잃은 사회 : 가치, 관계, 공동체를 고민하며
/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소망

기적이란, 일상의 힘이 상징적으로 응축된 사회적 에너지
일상의 힘을 회복시키는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치, 관계, 공동체의 재생 고민의 필요성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의 역할
개념
치유
회복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인적 소양

문화예술을 통한 "일상의 힘" 회복
2006년 호주 태즈메니아 광산 붕괴
음악이 두려움과 고통 이기는 힘이자 희망

자율성
적극성
개방성

건강한 일상의 힘을 잃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고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가치
관계
공동체

첫째, 시스템과 플랫폼 구축
둘째, 사회적 교류 기회를 다각적으로 기획
셋째, 다양한 사회의 흐름 반영

2014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폐막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오래 준비하며 수고해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의 아픔에 함께 슬퍼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아픔에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우리의 일상을 어루만지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일상의 힘”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달라지는데, 일상 속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선”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힘”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6년 4월 25일 호주 태즈메니아 지역에서 광산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광부 2명이 지하에 고립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상의 구조팀과 연락이 닿아 소식을 주고받으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었으나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간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들이 지상의 구조팀에 요청한 물품 목록에는 생필품과 함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밴드 푸 파이터스의 노래가 든 아이팟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이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자 희망이었던 겁니다. 예술은 이렇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의 힘을 잃은 사회 : 가치, 관계, 공동체를 고민하며

대한민국은 모두가 아픈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단 근래의 일은 아니지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힐링' 열풍은 우리 사회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가치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일상을 벗어난 잠시의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의 건강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사회화, 지역화라는 구현방향이 효과를 거두려면, "가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문화예술교육이 "누구"와 "무엇"을 위한 가치인가라는 사회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힘들 때 드러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공유하는 토대를 문화예술교육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체험을 내면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동네, 마을, 지역, 직장 등과 같이 개인관계를 넘어선 사회관계가 중심이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건강한 공동체의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의 공감하고 공유하는 힘을 높여줌으로써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을 논하는데 있어 가치와 관계, 공동체를 새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일상의 힘이 상징적으로 응축된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희망이 별 볼일 없는 결과로 이어져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사회는 건강한 일상의 힘을 잃고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에 갇혀 버리고 맙니다. 이 때문에 일상의 힘을 회복시키는 가치와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겨내는 힘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적 소양

분명, 문화와 예술은 정치, 경제, 법률이 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 실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문화예술의 본래적 가치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인적 소양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균등한 관계를 토대로 하는 '파트너십'의 개념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다양한 관점과 해석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문화예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극성입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창작자와 감상자라는 이원화된 구분 보다는 모두가 창작자이고 감상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연극을 만들고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부천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캘리그래피를 통해 자존감을 되찾은 광주소년원생들의 모습은 문화예술교육이 일상의 힘을 되찾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닌 적극적 창작자의 역할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개방성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남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데서 출발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되 배려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하도록 기회만 주고 정작 듣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개방성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의 인정", "다름의 수용" 그리고 "다름의 교류"에 있습니다. 특히 "다름의 교류"가 없으면, 사회적 삶은 척박해지고 결국은 남과 다른 "나"의 존재만 확인하면서 단절 사회의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나서기 보다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참가자 내면을 자극함으로써 내면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책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견고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결과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을 펼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체험을 통한 문화향유능력을 높이는데만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교감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둡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 배려,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데도 큰 비중을 둡니다. 따라서 개인의 미적 체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체험의 효과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를 보여주는 자리”와 더불어 “남을 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사회 흐름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갈등사회,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그로 인한 대중적 피로감을 보여주는 많은 조사결과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지쳐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눈뜨고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사람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과 방식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란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 고민하는 노력도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구현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2014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준비하시고 참여해주시고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5. 참고자료

05-2. 참가자 소감

01. 공식 프로그램

개막음악회 <하루하루>

참여자 소감

— 제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니까 좀 쑥스럽고 재미있어요. 혼자만 연습할 때는 좀 심심하다 해야 되나,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연주하니까 더 음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앞으로도 음악 계속 할꺼예요. <사연 참여자, 이우현 학생>

— 제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심장이 아직도 벌렁벌렁해요. 저에 대해서 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사와 작곡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구요, 정말 너무너무 떨리는데, 이 기분을 누가 알아 줄까요. <사연 참여자, 장복희 할머니>

관객 인터뷰

— 문화예술이 일상을 더 재미있게 만든다는 사실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 작곡가 분들이 그 작곡을 하게 된 계기, 사연을 받아서 작곡을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이었고, 생활 속에서 예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공연, 굉장히 솔직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분야의 공연의 조합이 굉장히 좋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오늘 옛날 서울역, 이 공간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뜻 깊은 음악을 듣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구요, 옛날에 있었던 고즈넉한 배경과 함께 현대의 음악들이 어우러지니까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계속 잘 활용 되어서 전국 각지 그리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좋은 공연 문화와 활기찬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늘 와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사람 사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구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막강연 <일상을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소감

— 우선 에릭부스 선생님의 강연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구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음악교육에서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릭부스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느낀 것은, 평소 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르적인 것이라 생각을 해서 특별한 예술가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그런 일상에서 조금만 한발 떨어져서 '만약에'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가지고 바라 볼 때 모든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구요, 열망이 있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교육적 맥락에서 그들이 일상으로서의 삶에 관한 어떤 열망을, 그러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오늘 강의 정말 재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열망, 열정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신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에릭부스의 강연을 듣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을 깨우는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저의 음악교육에서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폐막식

참여자 소감

— 1주 내내 문화역서울 284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이 곳에 못온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네요.

— 지친 대한민국의 일상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기 위해 가치, 관계,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누는 자리이다 보니 그 어느때 보다 박재은 원장님의 연설이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이번 주강행사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문화예술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뻐요. 일상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02. 기획 프로그램

SNS 캠페인 <우리가 사랑하는 말 語>

참여자 소감

-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이벤트로나마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꺼내놓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댓글의 단어들이 시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 어렵게 느껴졌던 시 만들기 놀이처럼 재미있게 느껴져 여러 번 참여했어요. 시를 통해 마음을 전하니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예술체험 박람회

참여자 소감

-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체험도 재미있고 참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았어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거 같아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많아요!
- 오늘 여기 와서 그린 제 본능캐릭터는요, 저는 남색머리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또 오드아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굿이랑 초록색 원피스를 좋아해서 그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 번에 또 오고 싶어요. <성문 밖 학교, 신수민 학생>
- 워크샵 체험을 통해서 저의 본능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구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 오늘 통만드는데, 통이 예뻐서 재미가 늘었어요. 영화도 봤고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창천초등학교, 권세음 학생>
- 선생님하고 언니들하고 진짜로 외계인이 된 거 같아요. 오늘 진짜로 정말 재미있었어요 <창천초등학교, 배운주 학생>

특별한 인터뷰 <소년, 중년에게 묻다> <사이>

관객 인터뷰

— 다큐 소재가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라 집중해서 봤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야기를 많이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운데, 아빠랑 못 해본 거 엄마랑 더 얘기 해보고 그러면 좋을 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랑 듣고 싶었던 말, 많이 하고 아쉽지 않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일산국제컨벤션학교, 이에림 학생>

참여자 소감

— 처음에 프로젝트 참여할 때,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접해본 게 아니라 의미가 있고 색다르게 보였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그냥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면이 되게 좋고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대인고등학교, 이원화 학생>

— 이번 작업으로 부모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구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하면서 더 다가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문산제일고등학교, 조희정 학생>

— 원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구요, 촬영을 하면서 아빠랑 평소에 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풍문여자고등학교, 박서빈 학생>

— 원래 저희 아이는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촬영을 하고 나서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이런 촬영이 더 많아지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문여자고등학교, 박서빈 어머니>

시민참여형 전시 <말하는 벽화>

참여자 소감

—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벽화, 예술이 되는 게 신선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포스트잇 벽화라는 컨셉 자체가 참신했어요. 친구들과 포스트잇을 옮겨 붙였을 뿐인데 예쁜 시와 벽화가 만들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한번 더 참여해보고 싶어요.

— 포스트잇을 떼어내면서 벽의 색깔도, 사람들의 표정도 아름답게 변하는 걸 보고 삶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참여자 소감

- 애기 데리고 오랜만에 공연 보러 와서 너무 기대되요.
- 너무 즐거웠구요,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연이 있으면 자주 찾아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오늘 정말 즐거웠구요, 신선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정책사업 전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관객 인터뷰

- 아르데에서 우리 삶에 유익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지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층 전시가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행사들에 다음에는 저도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상을 흥미롭게 만드는 새로운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 예술강사

참여자 인터뷰

- 혼자 학교 다니면서 많이 외로웠었는데 오랜만에 예술과정 선생님들 만나 뵙고 소속감과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가서 기쁩니다.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발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자리를 참여 못했는데, 너무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배운 거 '그냥 수업이다' 그러고 진행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 좋은 강의 듣고 저를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예술강사로 일하면서 예술강사가 가지는 역할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폰하면서 구체화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님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니까 저의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다양한 교수법도 서로 공유하고, 제 수업에서도 다른 분야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조금 더 예술교육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저는 올해 신규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더 많이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싶어서 사실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공예나, 사진,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얻었구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강사 분들의 노하우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 오늘 강의 즐거웠습니다

—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오늘의 발표 주제가, '예술강사의 꿈 같은 하루'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술강사의 가장 일상적이고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같은 입장인 예술강사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구요, 이것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강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걸맞게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 지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제 고향인 전주에 돌아가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좀 더 일반인들, 강사분들, 학생들에게 예술강사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기록 영상에서 발췌된 소감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5. 참고자료

05-3. 홍보 제작물

01. 기본형

포스터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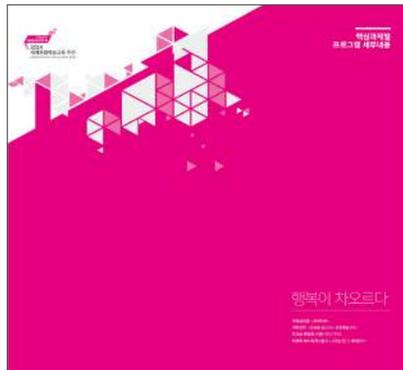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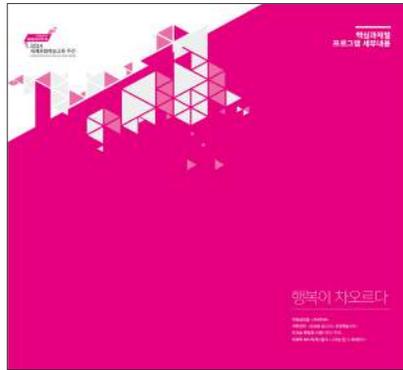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14.05.19(월) - 05.24(토)

매년 5월 넷째 주는 유네스코에서 선포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재발견하며,
또한 일상은 문화예술로 풍성해져 갑니다.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의 또 다른 메세지입니다.

개막음악회 5.19	개막강연 5.19
하루하루 / 5.19(월) 17:00 /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에릭부스 / 5.19(월) 18:30 /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rtweek.kr) 확인 바랍니다.
www.artweek.kr

프로그램북



02. 응용형 _ 대외홍보물

문화역서울 284
외벽 현수막



문화역서울 284 입구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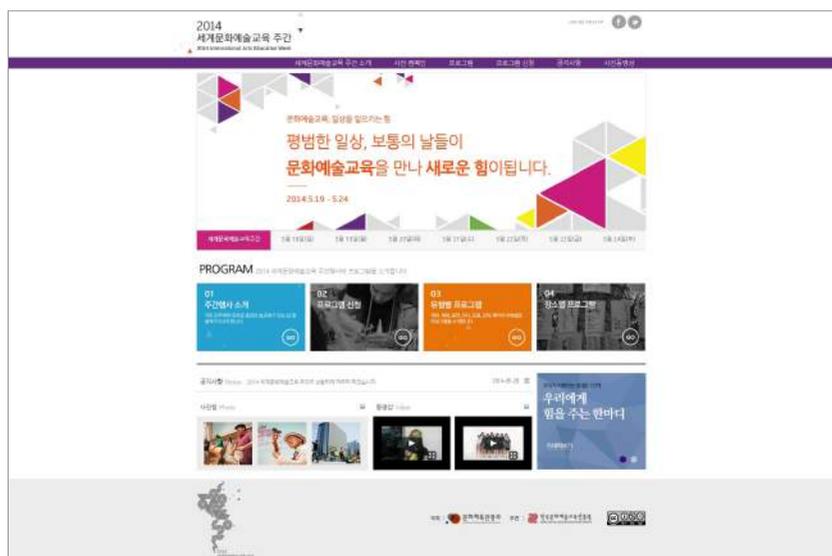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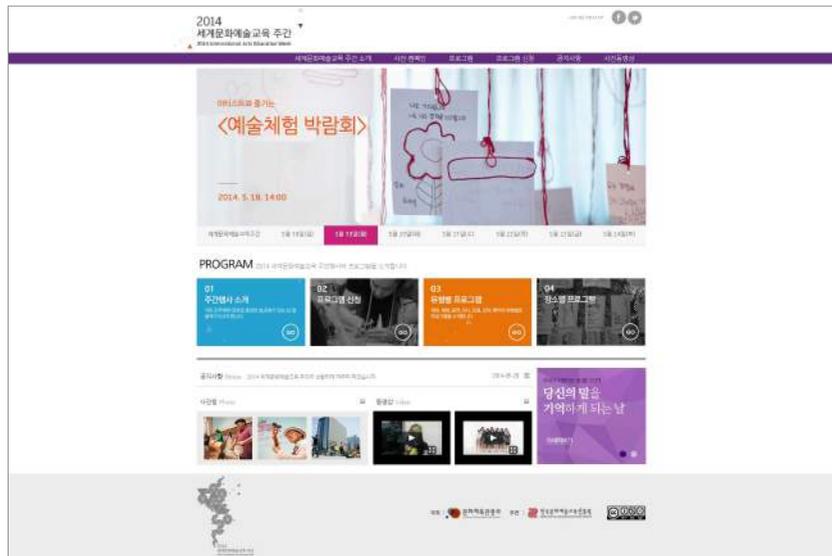


가로등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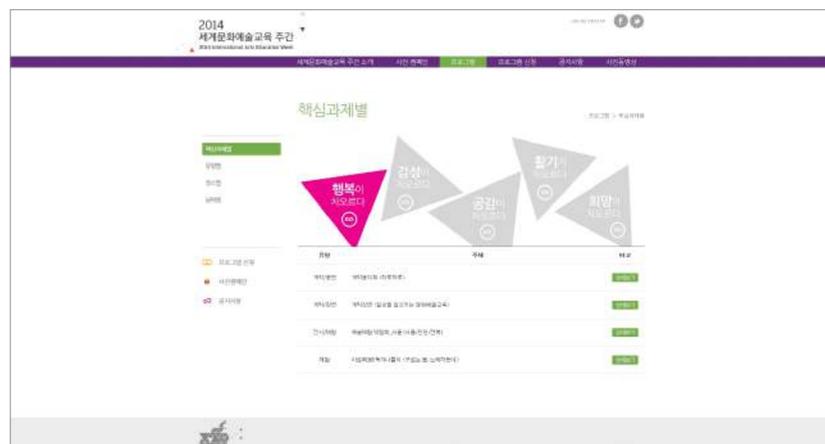


03.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세부페이지



주간행사 소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World Cultural Arts Education Week

2014년 11월 17일 ~ 23일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년 11월 17일 ~ 23일

- ▶ 17일: 개막식
- ▶ 18일: 개막식
- ▶ 19일: 개막식
- ▶ 20일: 개막식
- ▶ 21일: 개막식
- ▶ 22일: 개막식
- ▶ 23일: 개막식

2014주제 | **행위물 및 행사 일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유경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도모하고,
진심을 전하는
새로운 연대가 되어 일상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차장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선문문예가 날 무도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차장



일상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차장

주요행사

1. 11월 17일 (수)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2. 11월 18일 (목)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3. 11월 19일 (금)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4. 11월 20일 (토)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5. 11월 21일 (일)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6. 11월 22일 (월)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7. 11월 23일 (화)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주요행사

1. 11월 17일 (수)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2. 11월 18일 (목)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3. 11월 19일 (금)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4. 11월 20일 (토)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5. 11월 21일 (일)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6. 11월 22일 (월)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7. 11월 23일 (화) 14:00 ~ 16:00, 18:00 ~ 20:00, 21:00 ~ 23:00

상세페이지

공연형 2014년 5월 19일(월) 17:00-18:30

개막음악회 <하루하루>

일시 : 2014년 5월 19일(월) 17:00-18:30
 장소 : 문화예술교육 2B4 1층 중앙홀
 유형 : 공연형
 참여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 시민 150여명 내외

당신의 어떤 하루가 음악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담은 글과 사진을 공모하여 6개의 이야기를 선정, 선정된 시연들을 바탕으로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 사인과 함께 연주합니다.

구분	프로젝트명	공연자/연사
1	꿈과 빛 오조남 프로젝트	마담리스트 오주다이사이
2	남들 어깨에 뿔뿔 밀 떨어지던 날, 내 어깨 위에는 연지가 수북하다	사연: 임경규 작곡: 박영환
3	사른 다섯 살의 4월	사연: 김정문 작곡: 이강규
4	<주먹잡안>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학예술교육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용환
5	웃다 이룬 배우의 꿈	사연: 정복희 작곡: 박재문
6	장수군의 비올리스토	사연: 위주현 작곡: 김법기
7	장난이 전해 전도 불려버렸습니다	사연: 유진우 작곡: 유법석
8	출자로 입구각의 식판	사연: 안광수 작곡: 주효원
9	파리산안	

> 초청 연사



박용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가사를 공부다가 광고회사에 들어가 개업모처럼 번들 광고 그녀의 자전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를 통해 광고계에 이름을 알리고 내이비 '세상의 모든 지식', '5K' '비밀' '생활의 중심' 등의 광고를 연달아 성공시켰다.

- 저서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도끼다>, <여름 단어> 등
- 문화예술 명예교사

남들 어깨에 뿔뿔 밀 떨어지던 날, 내 어깨 위에는 연지가 수북하다 / 사연: 임경규
"물음표에서 느낌표" / 작곡: 박영환

임경규님의 사연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 오르고 당장이라도 상상이 맞는 느낌이었다. 그는 25살 경영학과 2학년 학생일 때도 불구 하고 그의 하루하루는 삶의 고통으로 살아있었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꿈은 그의 이름을 내건 단테의 회사를 가지는 것. 소중한 일상의 목표가 있기에 육공의 톱질 소리, 채민트공의 시프소리, 철공의 쇠 자르는 소리,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 하는 신장의 목소리까지 그려지는 삶의 뜨거운 열거된다.

해금, 25천기이급, 타악기, 마림을 위한 "물음표에서 느낌표"는 인생의 여정에서 따르는 미래에서 방향하고 허탈 채도 없지만, 꿈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단테시 가이 할 꿈을 찾아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테에 공시현림의 다양한 소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현상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비주얼과 비주얼의 리듬을 사용 하였다.

배금: 김준희
25천 기이급: 이지연
타악기: 서수복
마림: 오주다이사이

사른 다섯 살의 4월 / 사연: 김정문
"사른" / 작곡: 이강규

클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사른'은 서른다섯에 찾아온 책사들에게 찬 사연을 주신 김정은님을 위해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의 작곡을 시작할 때 '사란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란' 만큼 많은 의미와 상황을 포함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 슬픔, 행복, 기대, 희망, 피곤, 욕심, 마음, 중독... 이렇게 많은 의미와 상황이 '사란'이라는 단어로 포함되기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다가오기도 그리고 떠나가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배란'이라는 단어도 '간결함'이라는 감정이 형성되었고, 그 두 가지 느낌을 이 곡에 담았습니다. 바람처럼 다가온 사연의 마음이 책사들로부터 남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연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올린: 손보리
비올라: 이수아
첼로: 안소연
클러넷: 이은숙

웃다 이룬 배우의 꿈 / 사연: 정복희
"구경호" / 사: 이만숙, 작곡: 박재문

"구경호"와 "꽃밭은"은 "순수"이다. 사연의 주인공인 정복희 여르신의 긴 인생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화려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찬찬한

문화예술교육
일상을 일으키는 힘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결과보고서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4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06 참여하신
분들

0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예술국	김태훈 국장
문화예술과	정상원 과장, 김진업 사무관, 송수혜 사무관, 김주연 주무관, 정해경 주무관, 강규식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은
----	-----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총괄

대외협력팀	팀장	김자현 팀장
	실무총괄	오숙현
	실무	송혜경, 권민영, 정다워

정책사업 연계 프로그램 협력부서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노준석 본부장
정책연구팀	홍유진 팀장 _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학교교육팀	최지윤 팀장 _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창의사업팀	장희경 팀장 _예술꽃 씨앗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

융합사업팀	기영준 팀장 _장윤규 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아빠와 함께 얼렁뚱딱> _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I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_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오케스트라 TFT	김재경 팀장 _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I <시스템아 뉴 브런즈윅의 교육과 운영>
교육진흥본부	정연희 본부장
국제교류팀	김소연 팀장 _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I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인력양성팀	김하원 팀장 _예술강사 연수 <예술강사 만남의 날>

행사총괄대행

총괄운영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이채관, 노현정, 김진경, 최늘샘, 김혜린, 안종현, 조슬비, 은유, 신희라, 손희진, 유단희 (주)시월 이채윤, 김연실, 최미영, 남지영, 신은숙
언론 홍보	(주)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슬로건 및 BI	(주)시월
디자인	강다현
홈페이지	카인드인포
영상물 및 기록	2K 프로덕션

공식 프로그램

01. 개막음악회

기획 운영	(주)신촌커뮤니케이션즈
작곡가	박영란, 이강규, 박재은, 김범기, 유범석, 우효원 (*작사 이민숙)
사연참여	임성규, 김정은, 장복희, 이우현, 유진룡, 안광수
오프닝공연	오쿠다마사시(마임이스트)
초청강연	박웅현(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TBWA)
식전영상	(주)시월
개막선언 영상	방양(일러스트레이터)

02. 개막강연

기획 운영	(주)시월
강연	에릭부스 Eric Booth(미국 옐 시스템아 수석고문)
참여자	성은주(통역사)

03. 폐막식

기획 운영	(주)시월
비전발표	박재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기획 프로그램**01. SNS 캠페인 <우리가 사랑하는 말 語>**

기획 운영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주)시월
온라인 웹 개발	카인드인포
페이스북 앱 개발	아이디어포크
전자시집	유다명

02-1. 예술체험 박람회 (서울)

기획 운영	김태황
운영	(주)시월
참여 예술가	KKHH, 범과학, 양반김, 고무신, 황수경 뮤지컬, 공공미술프리즘, 한석경, 조성현, 최두수

02-2. 예술체험 박람회 (인천)

기획 운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획 운영	임종필
참여 예술가	최성욱, 오석근, 박충의, 최환, 한철희

02-3. 예술체험 박람회 (전북)

기획 운영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디렉터	임진아 팀장, 고혜경
참여 예술가	고보연, 장근범, 임택준, 이상훈, 이일순

03. 특별한 인터뷰 <소년, 중년에게 묻다><사이>

기획 운영	독립다큐멘터리 PD협회, 문화예술 놀다
참여자	김문승, 조희정, 최창용, 박서빈, 이원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9반 전원 및 3학년 (강무혁, 김치현, 김희산, 홍채린)

04. 시민참여형 전시 <말하는 벽화>

기획 운영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05. 해질녘 기차역 콘서트

기획 운영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출연 피터&솔래, 코스모스 슈퍼스타, 신현희와김루트, 앵드아, 신나는 섬

06. 정책사업 전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기획 운영 (주)시월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결과보고서

발행인	박재은
발행일	2014. 07.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week.kr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웹진	www.arte365.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ejockey
문의	02. 6209. 5900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외협력팀
등록번호	KACES-1450-R001
ISBN	978-89-6748-112-4 933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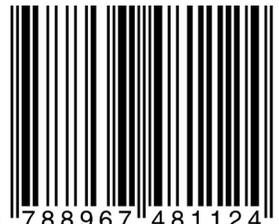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매품

93300



9 788967 481124

ISBN 978-89-6748-112-4



